



일자리 줄며 저소득층 연쇄타격
중소 임금, 대기업 60%도 안돼
대기업은 ‘CEO 과대보수’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불러온 건 보건위기뿐 아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일반 취업자 등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 가계 등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중소기업연구원(KOSBI)은 28일 발표한 ‘KOSBI 중소기업 동향 3월호’에서 올해 2월 자영업자가 537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만 2000명(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큰 산업에 집중된 탓이다. 1월의 경우 서비스업 창업기업 수도 전년 동월보다 48.7% 줄었다.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줄이거나 사업 자체를 접으면서 일자리도 급감했다. 임시·일용직 중심의 감소세가 지속하면서 단시간·단기간 취업자가 많은 여성과 청년층(15~29)에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대면서비스업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이 속출하면서 코로나19 전후 개인과 법인 파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1년간 개인과 법인 파산 건

수는 각각 5만 816건, 140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0%가량 증가한 수치다. 그나마 일자리를 보전받은 계층도 양극화에 따른 상대적 소득 감소는 피해 가지 못했다.

먼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보전받은 임시·일용직은 지난해 12월 월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보다 12만 2000원(상용직은 8만 1000원) 늘었으나,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의 56.6% 수준에 머물렀다. 임금 차이는 272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18만 2000원 벌어졌다.

기업에선 최고경영자(CEO)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대 제조기업 CEO의 연간 보수액은 2019년 평균 25억 1044만 원에서 지난해 27억 1809만 원으로 8.3% 증가했다. 반면,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2019년 9535만 원에서 2020년 9410만 원으로 1.3% 줄었다. CEO의 평균 연봉이 2억 원 늘 때 직원 연봉은 130만 원이 준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시총 상위 20대 제조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깎아 CEO들의 보너스를 챙겨준 꼴이 됐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kntae성 기자 tskwon@정수천 기자 int1000@



수에즈운하 대기선박 ‘희망봉’으로 간다
대만선박 에버기븐호의 좌초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통행이 막히면서, 수백 척의 배들이 대기하고 있다. 마비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국내 최대 원양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선박 4척을 아프리카 남부 희망봉 노선으로 우회하기로 했다. 유럽-아시아 왕래 노선 선박이 희망봉을 돌게 된 건 약 45년 만이다.▶관련기사 10·12면 로이터연합뉴스

“한국 줄 藥 없다” 2분기 백신공급 ‘비상’

AZ·화이자 805만명분만 확정… 해외 제약사 “원료부족·내수우선” 공급계약 미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상반기 접종을 공언한 규모는 1200만 명이지만 상반기 공급 물량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 해외발 백신 공급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세계 최대 코로나19 백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내 코로나 확산 조짐이 심상치않자 내수 공급을 우선순위에 두고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했고, 유럽연합(EU)도 물량 부족을 이유로 백신 수출 승인 규정을 강화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는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족 문제로 EU와 공급 계약 체결을 일시 미룬 상황이다.

정부가 도입을 확정하는 코로나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5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와 개별 계약해 공급받는 백신 350만 명분과 화이자와 개별 계약한 350만 명분의 백신이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물량인 50만 명분 가운데 25만 명분이 24일 공급됐고 나머지 25만 명분은 31일 공급된다. 남은 300만 명분은 6월까지 공급될 예정이다.

백신도입 일정 (단위: 만 회)		2월	3월	4월	5월	6월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210(105만 명)		
	화이자	11.7(5.8만 명)				
아스트라제네카		157(78.7만 명)	700(350만 명)		700(350만 명)	
화이자			24일 50(25만 명) 31일 50(25만 명)	600(300만 명)		
안센, 모더나, 노바백스					협의중	

이 외에 정부는 안센 6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 명분, 노바백스 2000만 명분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공급 물량과 시기는 협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안센 백신을 만든 존슨앤드존슨(J&J)이 애초 계약보다 적은 50만 명분 미만의 물량을 2분기에 공급하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방역당국은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8일 안센 백신의 1차 검증(검증 자문단회의) 단계를 거친 후 29일 결과를 발표한다. 안센 백신의 최종 승인 여부는 4월 둘째 주 내에 결정될 전망이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도입이 확정된 350만 명분 외에 95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공급 시기는 미정이다. 특히 화이자 백신의 경우 벨기에 생산분이 국내 공급되는 만큼 유럽에서 백신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경우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아스트라제네카백신은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해 국내 공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주문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물량과 시기를 확정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장담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 국내 공급 물량과 시기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다. 이달 초 영국 임상 3상 결과를 도출했고 이를 토대로 영국 등에서 정식 사용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미국 임상시험은 7월 중이나 결과가 나올 경우 식품의약품(FDA) 승인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박미선 기자 only@

정세균 ‘대권 도전’에 4월 개각

스페셜리포트
재보궐 선거따라 대권합류 저울질
총리 교체면 ‘중풍 개각’ 이뤄질 듯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제쯤 대권 경쟁 레이스에 뛰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대권 행보 움직임을 보이며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정 총리에게는 총리직 사퇴 결정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기사 6면

정치권에서는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가 정 총리의 대권 도전을 위한 총리직 사퇴 결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정 총리의 대권 경쟁 대열 합류가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며 “반약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정 총리의 대권 도전을 위한 총리직 사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선거 패배 시 정중동 행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여당의 선거 승리 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임이 굳건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이는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 총리의 대권 도전에 시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선거 패배 시 여권 전체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돼 정 총리가 이를 무릅쓰고 선부르게 대권 도전에 나서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신 교수의 설명이다.

반면 재보궐 선거 패배 시 정 총리의 대권 도전을 위한 총리직 사퇴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선거 패배 시 현재 차기 대통령 적합 지지를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수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여권에서 친문 주류 후보로 정 총리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시점은 ‘4말 5초’가 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정 총리 교체 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개각’인데다 공직사회 분위기가 쇠신 차원에서 ‘중풍 개각’ 가능성이 크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공직자 재산등록, 부당이익 소급몰수”

당정 ‘망투기 근절책’ 오늘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와 이해충돌 방지, 부당이익 환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종 내용은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서 투기 및 불법,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 행위 등의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 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는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와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 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 강화 방안을 마

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산 몰수 소급 적용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분위기였다”면서도 “오늘 당정협의회에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몰수와 관련된 의지가 매우 강하다”며 “반드시 소급 적용해서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3월 내 통과를 약속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3월이 가기 전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법의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가 많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준상 기자 jooon@

오늘부터 소상공인·특고 ‘4차지원금’

매출 감소 270만명 우선 지급
업종 7단계 나눠 최대 500만원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상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270만 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달 중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이 이뤄진 업종을 3단계로, 매출 감소 업종을 4단계로 나눠 총 7개 단계로 지급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 원을,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 원을,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을 준다.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에는 300만 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에는 250만 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에는 200만 원을,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 원을 준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 명에 대해서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00억 원)을 지급한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70만 명이 우선 순위다.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50만 원을 입금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 원을 준다. 지급 시기는 올해 5월 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다음 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 원씩 준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 원을 지급한다. 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농가에는 30만·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영농·영여 물품 구매 시에 활용할 수 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개인·법인 파산신청 10%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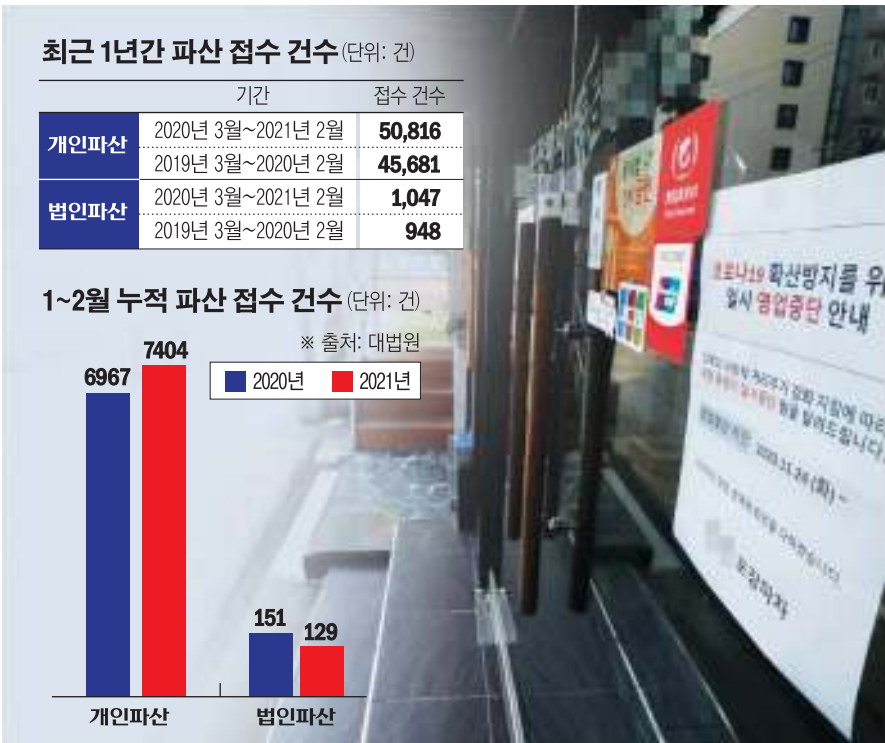
개인 5만건, 법인 1000건 넘어
확진자 나온 뒤 개인 파산 급증
백신 확보에도 파산 줄지 않아
“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개인과 법인의 파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1년간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5만 81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만 5681건보다 5135건(11.2%) 증가했다.

개인파산은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급격히 확산한 직후부터 증가했다. 지난해 2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시기 이후 3월 개인파산은 4275건이 접수됐다.

모든 입국자에게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4월에는 3945건으로 소폭 낮아졌으나 5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



되자 4031건으로 증가한 뒤 6월 4894건, 7월 4897건으로 치솟았다.

8월 들어 3996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사랑제일교회발 2차 대유행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2.5단계로 격상되면서 9월에는 4446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후 3차 대유행이 시작된 11월(4374건)과 12월(4748건)에도 평균 4000건 이상의 개인 파산 신청이 이뤄졌다.

올해 코로나19 백신 확보 소식에도 여전히 많은 개인파산이 접수됐다. 올해 1~2월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740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6967건)보다 437건(6.3%) 증가했다.

법인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인 파산은 104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9건(1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 101건, 4월 85건, 5월 96건, 6월 89건으로 오르내리다가 7월 103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8월 86건 △9월 104건 △10월 64건

△11월 105건 △12월 85건 등 꾸준히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회생신청은 감소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회생은 8만 454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9만1596건)에 비해 7047건(7.7%) 줄었다. 법인회생도 881건으로 99건(10.1%)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의 심각성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회생 절차를 밟아 재건을 도모하기 보다는 파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 회생전문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길어지면서 법인을 비롯해 장기적으로 버틸 여력이 많지 않은 개인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라며 “특히 국내 경기를 떠받치는 가계경제가 흔들리면서 경제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파산 증가는 양극화 심화 현상을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부의 세심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벼랑 끝 자영업자, 폐업 위기 몰렸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0.7% ↓
직원 줄여 1인 자영업자로 버티기
확진자 증가세... 생존 위해 사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자영업자들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KOSBI)이 28일 발표한 ‘KOSBI 중소기업 동향 3월호’를 보면, 올해 2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5만 6000명(10.7%) 급감했다. 반대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06만 9000명으로 4만5000명 증가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건 기존에 직원(고용원)을 뒀던 자영업자들이 직원들을 해고하고 1인 자영업자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상당수 자영업자가 인건비 등 고정지출부터 줄인 결과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폭은 지난해 12월 13만 8000명에서 올해 1월 15만 8000명, 2월 15만 6000명으로 확대됐다.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 폭 둔화다. 2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 폭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폭보다 11만 1000명 작았다. 인건

비를 절감해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보다 사업 자체를 접은 자영업자가 2배 이상 많다는 뜻이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 폭은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 폭은 지난해 12월 7만 5000명에서 올해 1월 3만 2000명, 2월 4만 5000명으로 축소됐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타격이 심하다.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대면서비스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피해는 종사자 규모별로 상이하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대기업 취업자는 2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000명(3.8%)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에선 202만 3000명으로 23만 1000명(10.2%) 급감했다. 중소기업에서 유독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건 사업체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유지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도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함께하여 더 큰 가치를



들리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동을 창조하는 기술 -

LS는 당신 가까이서
최고의 역량과 존중의 파트너십으로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만들어 갑니다.

LS partnership 함께하여 더 큰 가치!

20대 제조기업 CEO-직원 임금 격차 26.8배

삼성전자 65.1배로 ‘최고’… 금호석유 51.2배·LG 48.5배
‘경영 악화’ 이유로 직원 성과급 줄였지만 CEO 보수는 ‘평평’

지난 1년간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봉이 2억 원 증가할 때 직원 연봉은 13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시총 상위 20대 제조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실적을 거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CEO들의 연봉은 크게 올랐다. 반면, 직원 급여는 오히려 줄며 CEO와의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 경영 환경 악화를 이유로 기본급을 제외한 성과급 등이 전년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28일 국내 시가총액 상위 20대 제조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CEO와 직원 간 연봉 격차는 2019년 25.6배에서 2020년 26.8배로 더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CEO들의 연간 보수액은 2019년 평균 25억 1044만 원에서 2020년 27억 1809만 원으로 8.3% 증가했다. 반면, 직원들의 평균 급여는 2019년 9535만 원에서 2020년 9410만 원으로 1.3% 감소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전자업계를 제외한 자동차, 중공업, 정유, 화학 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성과급 등이 전년보다 줄어들며 직원 평균 연봉 인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이 줄어든 SK하이닉스(-20.3%)의 경우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에 포함된 미등기임원이 2019년 182명에서 지난해 151명으로 줄면서 평균 연봉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CEO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의 보수총액은 82억 7400만 원으로 직원 1인 평균급여액 1억 2700만 원의 65.1배였다.

삼성전자는 1년 사이 CEO의 임금 상승 폭도 가장 컸고, 직원 평균 급여 상승폭도 가장 컸다. 다만, CEO 보수가 140% 늘 때 직원 연봉은 18% 상승하는 데 그치며, 격차가 커졌다. 지난해 김기남 부회장의 보수는 전년 대비 48억 2300만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직원 평균급여는 1900만 원 증가했다.

성과급 논란을 겪었던 SK하이닉스의 이석희 사장 보수총액(24억 2700만 원)은 직원 평균(9358만 원)의 25.8배였고, 권봉석 LG전자 사장(17억 9400만 원)은 직원 평균(8600만 원)의 20.9배로 전자업

시총 20대 주요 제조기업 CEO 및 일반직원 연봉 비교 (단위: 만 원, 2020년 기준)

회사(CEO)	CEO 보수	직원 평균급여	격차(배)	회사(CEO)	CEO 보수	직원 평균급여	격차(배)
삼성전자(김기남 부회장)	827,400	12,700	65.1	SK(최태원 회장)	330,000	9,600	34.4
SK하이닉스(이석희 사장)	242,700	9,400	25.8	LG(구광모 회장)	800,800	16,500	48.5
LG화학(신학철 부회장)	196,400	9,300	21.1	삼성전기(경제현 사장)	98,800	8,800	11.2
현대차(정익선 회장)	400,800	8,800	45.5	포스코케미칼(민경준 사장)	73,000	7,600	9.6
삼성SDI(전영현 사장)	306,900	8,300	37.0	롯데케미칼(신동빈 회장)	350,000	8,800	39.8
기아차(송호성 사장)	86,800	9,100	9.5	S-Oil(후세인 알 카타니 사장)	55,987	10,900	5.1
포스코(최정우 회장)	192,700	9,800	19.7	한화솔루션(김동관 사장)	75,400	7,500	10.1
현대모비스(정익선 회장)	197,200	8,800	22.4	한국조선해양(가삼현 사장)	74,900	6,300	11.9
LG전자(권봉석 사장)	179,400	8,600	20.9	LG디스플레이(정호영 사장)	131,700	7,000	18.8
SK이노베이션(김준 사장)	297,700	10,300	28.9	금호석유(박찬구 회장)	517,600	10,100	51.2
※ 출처: 각사 사업보고서				평균	271,809	9,410	28.8

계의 임금 격차가 두드러졌다.

전자 업계 가운데 격차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 삼성전기도 경제현 사장의 지난해 보수총액(9억 8800만 원)이 직원 평균(8800만 원)의 11.2배에 달하며, 전자 업계 CEO의 연봉은 최소 직원들보다 10배 이상은 높았다.

기업 총수들과 직원 간 임금 격차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지난해 보수는 51억 7600만 원으로 직원 평균(1억 100만 원)의 51.2배에 달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지난해 받은 보수총액 80억 800만 원은 직원 평균의 48.5배였다.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지난해 현대

차 보수는 40억 800만 원으로 직원 평균급여 8800만 원의 45.5배에 달했다. 정 회장이 현대모비스로부터 받은 연봉도 19억 7200만 원으로 직원 평균의 22.4배에 이르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케미칼에서 받은 보수총액이 직원 평균의 39.8배로 나타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로부터 직원 평균의 34.4배인 33억 원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한화솔루션 사장에 오른 김동관 사장은 직원 평균(7500만 원)의 10.1배인 7억 5400만 원을 받았다.

직원 급여가 줄었음에도 CEO 보수가 늘어난 기업들도 눈에 띄었다.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사장의 지난해 보수총액은 7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1% 늘었다. 반면, 직원 평균급여액은 6300만 원으로 6% 줄었다. 현대모비스도 정익선 회장의 보수가 10.4% 증가한 반면, 직원 평균 보수는 8800만 원으로 3.3% 감소했다.

시총 상위 20대 제조기업 밖에서는 호텔 신라와 대한항공 등이 대표적이었다.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의 연봉은 48억 9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2.6% 증가했지만, 직원 평균 연봉은 5500만 원으로 15.3% 감소했다. 대한항공은 순환 휴직 등으로 사원들의 급여가 평균 15% 감소했지만, 조원태 회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작년 보수는 17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7% 늘었다.

시총 상위 20대 제조기업 가운데 CEO와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든 곳은 20개 기업 중 7곳에 불과했다. 13개 기업은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업종에 따라 기업 연봉이 갈리고, 같은 업종 내에서도 회사가 어려워 연봉을 깎는 곳이 있는 반면, 연봉을 올리는 기업도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며 “같은 기업 내에서도 CEO와 직원 간 연봉 차이가 벌어지는 등 업종·기업별, 임직원의 임금 격차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국민 “12배 차 걱정”… 기업들 뒤늦게 개선 노력

최고경영자(CEO)와 직원 간 적정한 연봉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다. CEO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직원보다 수십 배 넘는 연봉을 받고 있어서다.

2014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가 성인 남녀 2만 105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CEO와 직원 사이의

SK 최태원 “하이닉스 연봉 반납”
LG전자, 올해 인상률 9% 확정
삼성전자, 10년來 최대 폭 인상

적정한 연봉 격차를 12배로 응답했다.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및 기관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

다. 미국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회사인 그라비티페이먼츠 CEO 댄 프라이스는 2015년 자신의 연봉 90%를 삭감하는 대신 전 직원 120명의 연봉을 3년 안에 최소 7만 달러(약 7914만 원)로 올린다고 밝혔다.미국은 상장기업 CEO와 일반 직원 임금 격차 공개를 재무제표처럼 의무화하게 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올해 SK하이닉스로부터 받게 될 연봉을 반납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사업보고서에서 “조성된 기금은 노사협의를 통해 소통 문화 증진과 구성원 복지 향상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익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6일 서울 양재사옥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직원들이 성과급을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회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과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LG전자 노사는 올해 임금인상률을

9%로 확정했다. 9% 인상은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올해 임금 인상 규모를 두고 노사 간 임금차를 좁히지 못하던 삼성전자 역시 26일 평균 7.5%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10년래 임금 인상 폭 가운데 최대치다.

성태윤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성과가 좋아졌을 때 그에 따른 혜택을 근로자들도 확실히 보상받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다만 그 보상은 단순히 조직원이라서 받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성과와 연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訃告

農心그룹 신춘호(辛春浩) 會長께서
2021년 3월 27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만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화나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 소 :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장 지 : 경남 밀양 선영

·발 인 : 2021년 3월 30일 오전 5시
·연락처 : 농심 비서실 02-820-7000
빈소 02-2072-2091

農心그룹

“품질로 세계속 농심을” 라면왕 신춘호 마지막 메시지

신춘호 농심 회장 향년 92세 영면

“한국라면은 주식” 日과 다른 길 걸어 라면 톱5기업 우뚝
“연구만은 지지 마라” 당부...장남 신동원 차기 회장 수순

배가 고파 고통받던 시절, 내가 하는 라면사업이 국가적인 과제 해결에 미력이나마 보탬다는 자부심을 가져본다. 산업화 과정의 대열에서 우리 농심도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제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다그치고 있다. (1999년 故 신춘호 회장 자서전 “철학을 가진 쟁이는 행복하다”)

‘라면왕’ 농심 신춘호 회장이 27일 향년 92세로 영면에 들었다.

1930년 울산에서 태어난 고(故) 신 회장은 1965년 농심을 설립해 56년간 ‘신라면’ ‘새우깡’ ‘짜파게티’ 등 대표 제품을 만들며 국내 식품사에 한 획을 그은 주역이다. 평생 라면과 스낵을 고집하는 ‘독심 경영’으로 지난해 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하며 ‘K푸드’와 ‘K라면’ 전성시대를 열었다.

고인은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던 신격호 회장을 대신해 국내 롯데를 이끌었다. 하지만 1965년 말 라면 사업을 두고 형인 신 명예회장과 갈등 끝에 라면업체 롯데공업을 설립하며 독립했고, 1978년 사명을 농심으로 바꿨다.

농심은 ‘이농심행 무불성사’(以農心行無不成就)의 줄임말로 단순 소박하나 정직하고 인정이 넘치는 농부의 마음이란 뜻으로 신 회장의 경영철학이 반영됐다. 라면 사업에 나서며 그는 “한국라면은 간편식인 일본과는 다른 주식이어야 한다”라면서 “깊이 싸면서 우리 입맛에 맞고 영양도 충분한 대용식이어야 먹는 문제 해결에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철학을 견지했다.

신 회장은 탁월한 경영자이자 연구가이기도 했다. 회사 설립 때부터 ‘스스로 서야 멀

리 갈 수 있다’는 경영 철학 아래 연구개발 부서를 따로 둘 정도로 독자 기술 개발에 공들였다. 이미 라면사업 궤도에 오른 일본 기술을 도입하면 훨씬 수월했겠지만, 그럴 경우 농심만의 특징을 담은 한국인 특화 입맛을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다. 신 회장은 당시 “다른 것은 몰라도 연구개발 역량 경쟁에서 절대 뒤지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국인 입맛’을 강조해 직접 제품명을 지은 일화는 유명하다. 유기그릇으로 유명한 지역명에 제사상에 오르는 ‘탕’을 합성한 ‘안성탕면’, 짜장면과 스파게티를 조합한 ‘짜파게티’, 당시 막내 딸(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부인인 신윤경 씨)이 ‘아리랑’ 노래를 ‘아리랑~ 쓰리강~’으로 바꿔 부른 데서 영감을 얻은 ‘새우깡’ 등이 모두 그의 작품이다.

1986년 출시된 신라면과 1984년 출시된 짜파게티는 각각 국내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 1, 2위를 달리는 장수 히트 제품이다. 농심의 지난해 라면 매출은 2조 868억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라면 기업 5위에 등극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집콕’ 현상에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농심 창업주 고 신춘호 회장의 빈소.

뉴시스

리) 효과까지 더해지며 이 가운데 신라면 수출액은 4400억원을 넘겼다. 라면뿐 아니라 스낵 히트작도 개발했다. 1971년 4.5톤 트럭 80여 대 물량의 밀가루를 쏟아부어 만든 우리나라 최초 스낵 ‘새우깡’이다.

신 회장의 마지막 메시지 역시 ‘품질 제일’이었다. 고인은 몇 달 전 마지막 출근 당시 임직원에게 “가치 없는 최고의 품질로 세계 속의 농심을 키워라”고 당부했다.

농심의 차기 회장에는 고 신 회장의 장남인 신동원(63) 부회장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슬하에 3남 2녀를 둔 고 신 회장은

일찌감치 후계구도를 정리했다. 신 부회장은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 지분 42.92%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신동원 부회장은 신 회장 별세 이틀 전인 25일 농심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면서 2세 경영의 포문을 자연스레 열었다. 차남 신동윤 율촌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은 율촌화학 지분 13.93%를 보유하고 있다. 신 회장의 삼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도 메가마트 지분 56.14%를 보유하며 사실상 계열 분리를 마쳤다.

김혜지 기자 heyji@

끝내 살아서 화해 못한 1세대

조카 신동빈 화환...롯데·농심家 화해?

범롯데家·임원 조문 이어져

농심 창업주 신춘호 회장이 지난 27일 타계하면서 농심 가(家)와 롯데가가 50년간 이어온 갈등을 풀고 화해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신춘호 회장 빈소에 범 롯데 일원의 조문이 이어지면서 향후 두 기업의 관계 설정이 주목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심과 롯데의 갈등 역사는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둘째 동생으로, 일본에서 활동하던 신격호 회장을 대신해 국내 롯데를 이끌었다. 하지만 1965년 말 라면 사업을 두고 신 명예회장과 갈등 끝에 라면 업체 롯데공업을 설립하며 독립했다.

이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롯데 사명을 못 쓰게 하자, 신춘호 회장은 1978년 아예 사명을 농심으로 바꿨다. 이들 형제는 가족 간 왕래는 물론 선친 제사도 따로 지낼 정도로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지난해 1월 신격호 명예회장이 별세했을 때도 신춘호 회장은 끝내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장남 신동원 부회장이 신격호 회장의 빈소를 지켰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병원에 마련된 신춘호 회장의 빈소에는 범롯데 일가의 조문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양새다. 우선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조화를 보냈다. 두 조화는 고인의 빈소 내부에 자리 잡았다. 다만, 신동빈 롯데 회장은 현재 일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 2주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조문은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 임직원 일동’ 명의의 조화도 보내졌다. 롯데그룹 2인자를 지낸 황각규 전 롯데지주 부회장도 전날 빈소를 찾았다. 신 회장의 동생인 신춘호 푸르밀 회장, 조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등 범 롯데가 일원들이 잇따라 빈소를 방문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공직자 5억 차익 남기면 25억 벌금 추진

당정청 ‘투기 부당이익 환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부당이익 환수와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추진도 이르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공개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제도화와 농지 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도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은 논의를 거쳐 추후에 내놓을 전망이다.

이날 공개될 투기 근절 대책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당이익 환수,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

법경찰제도 도입 등으로 보인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는 물론 9급 공무원도 예외 없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위공무원 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취득 시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다.

부당이익 환수는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로 5억 원의 이익을 챙긴다면 해당 이익을 몰수하고 최대 25억 원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5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는 물론 이해충돌 행위를 막아 관리를 철저히 할 전망이다.

박준상 기자 jooon@

독립 투자전문그룹, 미래에셋

GLOBAL X ETF 랩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고객센터1588-6800]■당사는랩계약및관련서비스에관하여충분히설명할의무가있으며,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랩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랩어카운트 계약 전에 투자대상, 운용내용, 투자위험, 수수료 등에 관한 약관, 계약권유문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랩어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입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LOBAL X ETF랩 수수료 : 연 2.4% (분기 0.6%후취)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ETF 거래 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현지세율로 원천징수되며, 현지세율이 국내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국내배당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배당금 발생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지세율이 국내보다 높을 경우 차액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타 RP운용 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 소득세로 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심사필제21-01468호(2021.03.25~2022.03.24)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재선임 ‘중후장대’ CEO들 “미래 먹거리 찾아라”

철강과 조선, 해운 등 ‘중후장대’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재선임에 성공했다. ‘2기 체제’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미래 성장동력 확보, 실적 개선 등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최정우 포스코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 배재훈 HMM 사장, 김연극 동국제강 사장 등이 연임을 확정했다.

‘2기 출범’을 앞둔 CEO들의 가장 큰 과제는 미래 먹거리 확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탈탄소 시대 도래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포스코와 현대중공업그룹은 수소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권오갑 2기’를 공식 출범한 25일 ‘수소드림 2030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 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그룹 내 각 계열사의 인프라 및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육상과 해상에서 수소의 생산에서부터 운송, 저장, 활용에 이르는 ‘수소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포스코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지난해 말 선언하고, 수소 전문기업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차세대 성장사업인 수소 사업은 내부 생산능력을 증진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기회를 발굴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수소 환원 제철을 실현해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단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저탄소 제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소 사업뿐만 아니라 이차전지소재도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최 회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배재훈
HMM 사장



김연극
동국제강 사장

포스코·현대중 수소사업 도약 HMM 친환경 컨테이너선 예정 동국제강 ‘중강기업’ 성장 목표

장은 “생산능력의 지속적인 확대 및 리튬·니켈 등 원료 내재화, 기술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톱 티어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 개선을 이룬 CEO들은 올해에도 호조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HMM은 지난해 영업이익 9808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최근에도 운임이 높은 수준에 머물면서 올해는 영업이익 2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배재훈 사장은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룩해 글로벌 톱 클래스 선사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MM은 올해 상반기 1만6000TEU급 친환경 스마트 컨테이너선 8척을 인수할 예정이다. 배 사장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별크부문도 전략 화주 영업기반으로 원가 경쟁력 있는 선대를 구

축하고 시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에 더욱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철강산업 침체에도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당기순이익은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앞으로 수익성이 높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중강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계속할 계획이다.

다만 철강업계는 안전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최정우 회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무재해 작업장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표이사 사장(철강부문장) 직속으로 ‘안전환경본부’를 신설했다.

김연극 동국제강 사장은 지난달 현장 점검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외주, 협력사까지도 빠짐없이 안전시스템을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주총 넘은 금융지주 미래 생존 경쟁 시작

국내 금융지주사가 주주총회를 마무리 짓고 미래 금융 선점을 위한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올해 주총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연임 및 사외이사 재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며 금융지주사로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기관투자자들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국민연금인 사외이사 다수의 선임안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하며, 주주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고 권고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라임사태 등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 감시 의무를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주총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되며 금융지주는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래 준비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 단기적으로는 사모펀드 관련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라임·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의 분쟁조정을 상반기 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금융의 준비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로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DT)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됐다. 금융사로선 은행사업의 성장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DT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 대세가 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김유진 기자 eugene@

2기 체제 연 금융수장들

신한, 디지털 책임경영 TF 출범 하나 ‘소비자리스크위원회’ 신설 금소법 시행 맞춰 ‘사람’에 방점

4대금융지주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최고경영자(CEO)연임과 사내이사 선임 등을 마무리 지으면서 공격적인 경영 전략에 돌입한다. 금융소비자법 시행과 맞물려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해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로 잃었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여기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등 구체적인 청사진도 내놨다.

29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주주총회를 마친 금융지주 수장들이 ‘소비자보호·ESG’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연임을 통해 2기 체제에 돌입하는 은행과 새로운 은행장을 선임한 은행 모두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2월 17일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의 연임을 확정하면서 ‘조용병·진옥동·임영진’ 2기 체제 출범을 알렸다. 지난 25일 열린 주총에서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ISS의 반대에도 진옥동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태수
우리금융 회장

행장 등 6인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여전히 많은 고객이 투자상품 사태로 아픔을 겪고, 주주까지 측면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경영진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약속했다.

금융권은 지난 25일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금소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신한금융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경영관리부문(CMO)을 신설한 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회사 전반의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인력도 확충했다.

ESG 경쟁력도 높인다.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카드가 기업의 디지털 책임(Corporate Digital Responsibility·CDR) 경영을 위해 CDR 경영 태스크포스 팀을 출범했다. CDR 경영은 디지털 경영 전반 이슈를 환경·책임·지배구조(ESG) 관점에서 재해석한 것이다. 자사 데이터를

통한 탄소배출 절감 기여, 디지털 격차 해소, 데이터 소비자 주권 중심 지배구조 확립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하나금융도 소비자보호와 ESG를 올해 핵심 사업으로 진행한다. 하나금융은 26일 주총을 통해 이사회 내 ESG 관련 위원회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와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정관 개정 안건도 통과시켰다.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에는 ‘그룹소비자리스크관리총괄’과 ‘소비자리스크관리팀’을 배속해 추진력을 강화한다. 실행 중심의 ESG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사회가치팀’을 ‘ESG기획팀’으로 개편한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4연임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1년 임기 동안 실적과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또 최근 ESG부 회장을 신설해 ESG 금융 실천에 속도를 낸다. ESG부회장은 경영관리 부회장을 맡아온 함영주 부회장이 담당한다.

금융지주 주주총회 주요 안건

신한금융	사외이사 재선임(6명), 신규선임(4명) 분기배당 위한 정관 변경 ESG전략위원회 신설
KB금융	사외이사 재선임(5명) 중간 또는 분기배당 논의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1년 연임 박성호 행장 선임 및 이사회 합류 사외이사 재선임(6명), 신규선임(2명) 중간 또는 분기배당 논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신설
우리금융	권광석 행장 1년 연임 사외이사 재선임(5명) ESG경영위원회 신설

주총을 통해 새로 취임한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사람 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사람’을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박 행장은 △손님 생활 속의 디지털 은행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은행 등 3대 전략방향을 제시했다.

우리금융은 권광석 우리은행장이 연임하면서 ‘손태수·권광석’ 2기 체제에 돌입했다. 권 행장은 25일 열린 주총에서 연임을 확정된 뒤 곧바로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근무 중인 마이데이터 개발진과 경기도 오산 세교지구의 영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올해는 소비자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면서 디지털과 채널 혁신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법근 기자 nova@

1년에 4번 ‘분기배당’으로 株心 잡는다

주주친화정책 예고

신한, 분기배당 정관 개정 KB·하나도 실행 적극 검토

국내 금융지주가 분기배당, 배당가능이익 확충 등의 방안을 통해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배당성향을 축소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대부분의 금융지주가 수용한 대신, 향후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예고하며 주심(株心)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 4회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정관상 중간배당은 기존에도 가능했으나, 배당 횟수를 연간 최대 네 차례까지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서 주주친화 정책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미 중간배당이 정관에 명시돼 있는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도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26일 정기 주총서 “중간배당은 정관에 이미 허용돼 있다”며 “최근 주주들이 금융지주 배당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안정적인 배당 공급 필

요성이 커진다는걸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중간배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승 하나금융지주 재무총괄 전무(CFO)도 이번 정기 주총에서 “중간배당과 기말배당을 포함해 주주가치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해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섰다. 이달 26일 열린 주총에서 자본준비금(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시켜 4조 원 가량의 배당가능이익을 확충했다. 농협금융지주 또한 배당금

이 조합원인 농민 지원금으로 활용되는 만큼 중간배당 등을 통해 추가적인 배당을 검토할 것이라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금융지주가 앞다투어 배당 확대의 신호를 보낸 데는 올해 초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배당이 제한되며 주주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금융지주사의 경우 역대 최대 실적에도 배당은 오히려 줄어들며 주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맞추라고 권고했다. 규제비용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신한금융지주만 22%의 배당성향을 결정했으며, 다른 금융지주사는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맞췄다. 김유진 기자 eugene@

김부겸 총리 후임설...유은혜 기용땀 연쇄 교체 불가피

정세균 총리, 내달 대권 등판 유력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권 등판이 다가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전후 총리직 사퇴가 점쳐진다. 정 총리가 사퇴하면 중규모 개각도 불가피하다. 다만 새 내각의 임기가 1년 내외란 점에서 후보군은 제한적이다.

정 총리가 직접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 그는 15일 기자단간담회에서 “지금은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의 대책도 세우고 있다”며 “내가 후보로 나서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앞선 1월 라디오 인터뷰에선 “현재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어서 이 일에 매진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 그다음에 뭘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정치는 계속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 역대 국회의장들이 임기 후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출마했던 관행을 고려하면, 마찬가지로 국회의장 출신인

정권 말 ‘순장조’ 증폭 개각 가능성
임기 1년 내외...외부 발탁 어려워
교육·국토외 해수·농림도 대상
‘최장수’ 홍남기 부총리 바뀔수도

정 총리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총선 출마 없이 정치를 이어간다면, 남은 선택지는 대선뿐이다. 관건은 출사표를 던지는 시점이다. 정 총리는 수차례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 달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1주 차부터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 총리의 총리직 사퇴는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문제로 새 내각의 임기가 1년도 보장되지 않는 만큼, 총리직 사퇴가 다음 달을 넘기긴 어렵다.



정 총리의 사퇴 시 신임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규모 개각이 예상된다. 신임 총리 후보군으로 유은혜 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론된다.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계보인 유 부총리는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있다. 여성이란 점에서 ‘여성 30%’라는 내각 구성 원칙을 지키는 데에도 유리하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력이 있다. 그만큼 당내에서는 물론, 당 외에서도 지지층이 두텁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최적의 카드다.

만약 유 부총리가 후임 총리로 낙점된다면, 사회부총리도 후임을 정해야 한다. LH 땅 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고려하면, 4월 개각대상은 총리, 교육부, 국토부 등 최소 3개 부처가 된다.

여기에해양수산부와농림축산식품부도 개각대상으로 언급된다. 두 부처는 농림어업 기반 사·군에 지역구를 둔 현직 의원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 모두 임기 1년 6개월을 넘긴 상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로 여성 내각 비중이 깨져 농식품부와 해수부 중 한 곳에는 여성 장관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유

력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개각대상 중 한 명으로 언급된다.

박상철 경기도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를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큰 개각이고, 정 총리의 사퇴가 예정된 수순인 만큼 다가오는 개각도 계획에 있던 개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국토부 등 일부 부처는 쇄신도 필요하다. 총리 교체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누구를 후임 총리·장관으로 임명하느냐다. 정권 말 내각은 대통령과 운영을 함께한다는 점에서 숙된 표현으로 ‘순장조’로 불린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내각에 대한 평가로 직결돼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장관들에게는 위험부담이 크다. 따라서 외부에서 인재를 수혈하는 게 여의치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일부 부처는 내부 승진형 장관 교체가 유력하다.

박 교수는 “2배수로 추렸는데 내부 1명, 외부 1명이라면 내부로 가는 경우가 많고, 정권 말에는 대체로 그랬었다”며 “쇄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게 좋은 개각은 결코 아닌데, 이번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나마 내부 관료들이 전문성이 있고,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도 조직이 굴러가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언제든든지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연 최대 500만원 소득 공제



연 복리 이자 지급



공제금 압류 금지



경영·심리 무료 상담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강점 온화한 리더십, 다양한 경험, 포용력, 열린 계파색 약점 원론적 화법, 밋밋한 캐릭터 지지율 1%	강점 단호한 리더십, 화려한 연변, 꼼꼼함, 추진력 약점 독단적 의사결정, 당 정체성과 괴리된 행보 지지율 10%

※지지율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결과(3월 22~24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丁 vs 李’ 초유의 전·후임 총리대결 눈앞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가 현실이 된다면 초유의 전·후임 총리 대결이 성사된다.

전임 총리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현직 총리인 정 총리는 지역적 지지기반이 호남이란 공통점이 있지만, 당내 지지기반과 강·약점, 리더십 등에선 큰 차이를 보인다.

정 총리의 강점으로 온화함을 바탕으로 한 포용력이 꼽힌다. 참여정부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해 범진노계로 분류되지만 계

등 행정·국정운영 경험도 풍부하다. 종로 지역구 당선 경험도 있다. 단, 정 총리에 비해 적이 많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행정수도 이전 반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당 정체성과 동떨어진 행보로 당내에서 이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호불호가 극명하다.

두 대권주자에 대한 평가는 정부 내에서도 갈린다. 정 총리가 ‘온화한 리더십’을 보인다면, 이 대표는 총리 시절 ‘단호한 리더십’을 보였다. 공무원들의 평가는 정 총리에게 후하다. 이 대표의 꼼꼼함과 다소 독단적인 모습은 관료들에게 불만을 샀다. 조속히 성과를 내는 측면에선 이 대표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총리였던 이 대표에게 쏠리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여론 조사상 두 대권주자 간 대결 구도는 이 대표의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초기 이 대표는 ‘여니’라는 별칭을 얻으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총리에서 물러난 뒤에는 문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과 함께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집값 폭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에서 비롯된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 이 대표의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정 총리는 여전히 유력 대권주자보다 ‘잠룡’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정 총리의 대선 출마선언 여부에 따라 역학구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파색이 열고, 호남 출신이지만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국회의장 시절엔 야당과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적이 적다는 건 정 총리의 가장 큰 강점이다. 다만 캐릭터가 밋밋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강하고 직설적인 화법보다 원론적인 화법을 주로 구사해서다. 같은 이유로 선명성을 강조하며 양당을 ‘적’으로 대하는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이 대표의 강점은 꼼꼼함과 화려한 연변이다. 총리 시절이던 2019년 4월 강원 산불 대책의 피해·지시사항이 기록됐던 수첩은 이 대표의 꼼꼼함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다. 이 대표는 또 야당 의원들의 말문을 막는 ‘촌철살인’ 화법에 대중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전라남도지사, 총리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뭣, 10년前 퇴출 시장” “朴, 매번 우려먹는 곰탕공약”

재보선 D-9

극단으로 치닫는 상대후보 비방전
부산서도 후보들 막말 공세 펼쳐져
여야 지도부 경계에도 네거티브 공방

4·7 재보궐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유세현장이 네거티브 공방 현장으로 변모해 상대 후보 비방전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서초구 고숙버스터미널 앞 유세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을 다 허가해 주면 서울은 다시 투기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공약에 대해 지적했다.

전날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전 서울 중랑구의 한 시장에서 진행된 박 후보 지원유세 현장에서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겨냥해 “거짓말하는 후보는 쓰레기”라며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그는 “4월 7일에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셔야 한다”면서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냐, 내곡동을



28일 서울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열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이 자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듣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하는 후보다. 쓰레기냐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에 윤희석 국민의힘의 대변인은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뭉치 마’ 흑색선전으로 모자랐는지 역대급 막말이 등장했다”며 “시민들이 뻔히 지켜보는 순간조차 이런 저급한 단어를 쓸 줄 누가 상상이나 했나”라고 분노했다. 이어 “우리 편이 아니면



28일 서울 서초 고숙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집중유세에서 지지들이 박 후보를 연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쓰레기’라 여기는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 증오를 먹고 크는 망국적 편 가르기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에는 박 후보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오 후보를 향해 “낮은 사고에 의한 실패한 시장, 10년 전 아이들의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민으로부터 사실상 퇴출당한 시장”이라 날

선 비판을 했다.

오 후보 역시 26일 박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구로구를 찾아 공세를 펼쳤다. 특히 박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집중 공격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가 구로구에서 내놓은 공약은 매번 우려먹던 곰탕 공약이다. 이전 맹물밖에 안 나온다”며 “그 양반이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 곰탕 공약만

내놓던 사람이 이번에 내놓은 공약은 믿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의 수직정원도시 공약에 대해선 “서울 어딜 가도 산도 있고 산책할 곳도 있는데 아파트 같은 인공구조물을 만들어 나무를 심겠다고 한다”며 “꿈꾸는 소녀 같은 공약 내놓는 사람을 서울시장으로 원하느냐”고 말했다.

부산에서도 후보들의 막말 공세가 펼쳐졌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부산은 3기 암환자와 같은 신세”라고 말해 환자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각 후보와 소속 의원들에게 선거 막판 막말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을 우려해 ‘막말 경계령’을 내렸지만, 선거 유세판에선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 원장은 25일 “말 한마디 잘못이 얼마나 많은 표를 상실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 원장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신중해야 한다”며 입조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與 “사이진보 찾아라” vs 野 “중도층 지지 확대”

“MB시절 회귀 안돼” 지지층 결집…“정권 교체” 文정부 실정 부각

4·7 재보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층을 총결집하겠다는 전략이고,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와 함께 정권교체의 길을 열겠다고 버리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에서 90% 이상의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백병전’, ‘보병전’을 통해 바닥을 훑는 작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또 야당 후보들의 부동산 비리 등의 의혹 공세에 집중하며 “이명박 시절로의 회귀는 안 된다”는 논리로 여권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LH 사태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돌아선 지지층은 물론, 그동안 선거 결과에 나오지 않았던 이른바 ‘사이진보층’까지도 집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하며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으로의 지지 확대를 시도 중이다.

국민의당과 야권 통합 시너지 효과를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원순 시

즌 2가 되면 안 된다”며 재보선 원인을 제 공한 민주당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 사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선거까지 열흘가량 남은 만큼 △TV 토론 △사전투표 포함 전체 투표율 △막말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3월 대선의 전초전인 이번 재보선 결과는 차기 권력 지형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정권의 지지율 반등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정권 재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질 경우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하며 대선을 앞둔 당내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야권 재편을 통해 다시 구심점을 확보해 대선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패배 시에는 지난 총선에서 참패하며 힘을 잃은 데 이어 제1야당이 한 층 더 혼란에 빠질 것으로 점쳐진다.

하유미 기자 jscs508@

38노스 “北, 탄도미사일 잠수함 진수 준비 중”

신포조선소서 드라이독 이동 포착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가 가능한 신포조선소의 진수를 준비 중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나흘 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26일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를 찍은 상업용 위성 사진을 24일(현지시간) 분석한 결과, 부유식 드라이독(drydock)이 잠수함 진수 시설 옆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드라이독은 선박의 건조와 수리를 위해 해수 급·배수 장치 등을 설치해 놓은 시설이다.

38노스는 신포조선소 인근 부두에 보통 정박해온 드라이독이 잠수함 진수 시설 옆에서 포착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신포조선소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잠수함을 건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

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7월 신포조

선을 방문해 개조된 로미오급 잠수함을 시찰하기도 했다. 38노스는 드라이독의 위치 변경을 두고 “두 가지 전개 사항 중 하나를 시사한다”며 “우선 수년간 건조 중인 새 탄도미사일잠수함이 거의 완성돼 가까운 미래에 진수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탄도미사일잠수함 진수 준비가 아니라면 잠수함 제조장과 부두를 오가는 레일 정렬을 목적으로 드라이독을 이동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북한의 새 잠수함 진수 준비와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는 위기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앞서 북한은 25일 동해상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다며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주택과도시에서 행복할 권리

주도권을 위해 HUG가 함께합니다

고민은 들어주고 걱정은 덜어주고!

당신의 주도권을 위해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항상 곁에 있습니다

“건설사 부도날까 걱정 안 해도 돼서 안심이에요”

주택분양보증

“전세보증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당당해졌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낮은 건물이 새롭게 바뀌니까 동네에 활기가 생겼어요”

도시재생금융지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땀 보험금 전액 물어낸다

이르면 하반기부터...국토부 ‘車손해배상 개정안’ 추진
횡단보도 위반 등 12대 중과실 가해차 수리비 청구 제한

이르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는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

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 시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은 1000만 원, 대물은 500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을 한 운전자가 7중 연쇄 충돌사고 유발, 9명 중경상자를 내고 약 8억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또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그간 차 대 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가해 차량이 고급차량이면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 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인명 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해야 한다. 김경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텅 빈 대학가 상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6조7천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급을 29일부터 지급하며 30일부터는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명을 대상으로는 4천500억원 상당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인근 상가 모습.

연합뉴스

도서관·안마소 등 33개 업종 ‘거리두기 강화’

오늘부터 키즈카페 등 9개 업종 추가
기본방역수칙도 4개서 7개로 확대
내달 5일부터 수칙 위반 땀 과태료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조치가 사실상 강화한다.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기존과 같지만, 방역수칙 적용대상 업종이 24종에서 33종으로 확대된다. 기본방역수칙도 4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0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강화방안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방역수칙 적용대상 업종에 스포츠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

음식섭취금지시설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점관리시설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

기타 종교시설, 카지노, 도서관, 경륜경정장마, 미술관·박물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전자출입명부작성의무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디지털카메라가 있는 경우 음식섭취가능

사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안마소 등 9개 업종이 추가된다. 기본방역수칙도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관리에 방역수칙 게시·안내가 빠지고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가 추가된다. 음

식 섭취 금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 모든 방역수칙 적용대상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출입명부 작성은 기존 대표자 작성에서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한다.

단 현장 준비여건을 고려해 다음 달 4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5일부터는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82명 증가한 1만17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500명대에서 다시 400명대로 떨어지긴 했으나, 주말 선별진료소 운영 축소로 진단검사가 줄어드는 휴일 효과를 고려하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462명, 해외유입은 20명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K방역·K바이오는 적극 홍보하면서 文정부 ‘K재정’은 외면

IMF ‘재정건전성’ 3~4위 기록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정부는 K방역, K바이오라는 용어까지 만들며 정부의 성공적인 대응을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이 세계 3위를 기록한 이른바 ‘K재정’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재정부국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통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분석한 결과 GDP 대비 재정지출은 3.4%로 덴마크(1.8%), 핀란드(3.0%)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또 국가부채 증가율은 2019년과 비교해 6.5%포인트(P)로 노르웨이(-1.3%P), 싱가포르(1.2%P), 덴마크(5.1P)에 이어 네 번째였다. GDP 대비 재정적자도 -2.5%로 터키(1.0%), 인도네시아(-1.6%), 멕시코(-2.1%)에 이어 네 번째를 기록했다.

IMF 재정점검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 정부의 재정 활용에 대

해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각국 정부는 보통 재정지출 규모를 크게 보이게 만들려고 한다. IMF 통계는 통계작성의 시점, 재정지출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서 각국 비교에 유용하다. 가령 재정지출에서 방역보건 비용을 제외한 경제지출을 따로 산출하고, 그것을 또 현금성 지원에 해당하는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 범주와 출자/대출/지급보증 범주로 나눠 통계를 낸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추경(정부안 기준)으로 총 67조 원을 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때마다 더 늘릴 것을 주장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만 증액했을 뿐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재정부국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수치가 자랑스럽다면 K재정이라며 대국민 홍보를 하지 않을 것에 재정부국의 속내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홍남기 부총리가 IMF가 성장률을 올린 보고서는 바로 인용해 자신의 SNS에 홍보했다”며 “재정건전성을 그렇게 따지는 정부가 좋은 성적을 기록한 또 다른 IMF 보고서는 외면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코로나 영업제한업종 근로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 오늘부터 수급자격 완화
구직단념 청년·보호종료 아동 등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 근로자에 대해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완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고시가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수급자격 완화 대상은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 일반 근로자와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 중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하 보호종료아동),

구직단념 청년이다.

우선 고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 근로자에 대해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이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5~34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 신설해 1대1 맞춤형 취업상담을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구직단념청년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

이번 수급요건 완화 대상자 중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1인 가구 월 약 91만 원·4인 가구 기준 약 244만 원) 이하인 자(재산 합계액은 3억 원 이하)는 구직활동 기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세종=서병관 기자 sbg1219@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절차 이번주 착수

노동계 “5.5% 인상” vs 경영계 “안정화 필요”...노사 벌써부터 대립

이번 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는 고용부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 요청이 이뤄지면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심의 요청을 앞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사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이 가중된 만큼 이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고 코로나19도 장기화하고 있어 상당 기간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결 요구가 예상된다.

세종=서병관 기자 sbg1219@

수소충전소

어느새.수소 어느새.넥쏘

Positive Energy
NEXO



* 전국 수소충전소 '21년 180기, '22년 310기 구축 예정 (환경부 발표 기준)

아직 국내에 수소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프랑스 에펠탑, 일본 도쿄타워 등 세계 중심지에도 충전소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곧 310개의 충전소가 더 생긴대요.
이거, 수소 에너지가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겠조?

-넥쏘 차주 김동현 님

 **HYUNDAI**

bluehands
차량 관리 서비스는 bluehands가 책임집니다
회원혜택: 블루핸즈-게이샤서비스/간접출발/블루포인트/연인서비스

■구입 문의전화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원 콜 서비스 080-600-6000 ■17인치야복합 96.2km/kg(도심 99.5km/kg, 고속 92.6km/kg) CO2배출량 0g/km 공차중량 1820kg ■19인치야복합 93.7km/kg(도심 96.9km/kg, 고속 88.0km/kg) CO2배출량 0g/km 공차중량 1885kg ※연비 및 항속거리는 도로상황, 운전행위, 차량상태, 정비상태, 외기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상태에 따라 완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항속거리도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소충전 시간은 수소충전소의 충전압력 및 외기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제해탈력 후 관리가격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기준 520만원 한도이며, 판매조건 및 선택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가격은 모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차량의 외관 및 성능 개선이 나 관련 법규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델별 자세한 가격 및 사양은 해당 일의 가격표를 참고하십시오 ※상기 예약판매 기간 및 혜택은 당사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속주행을 합니다 ※한대지동차는 지점 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상파울루 확진 64%가 변이... 브라질 ‘新팬데믹 공포’

전세계 변이 코로나 사망 3분의 1
전염·재감염률 기준 코로나 이상
브라질 확산세에 인접 국가 비상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새로운 악재가 터졌다. 브라질에서 변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이웃 국가는 물론 경기 회복에 들어간 각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27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매체 리우 타임스에 따르면 상파울루대 열대의학연구소는 이날 자체 조사를 발표하고 상파울루 확진자의 64.4%가 자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P.1) 감염자라고 밝혔다.

브라질 전체 인구는 세계 인구의 3%가 채 안 되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P.1은 이미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 퍼진 상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성이 최대 2.2배 높고 재감염률은 61%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하고 젊은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6~8월 사이 브라질에서 감염된 60세 미만 환자는 전체의 26%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30%에 달한다. 브라질 헤시피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 의료진은 “합병증 없고 나이도 많지 않은 환자들마저도 바이러스에 압도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확산이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근 중남미 국가를 넘어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까지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의 윌리엄 하니지 역학 교수는

“전 세계가 전염병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을 서두르고 있다”며 “P.1이 아직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장소에 전이되면 어떻게 될지 두렵다”고 밝혔다. 실제로 브라질 인근 페루 정부는 최근 수도 리마의 확진자 중 40%가 P.1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브라질과 국경을 맞댄 우루과이에서도 P.1. 감염자 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전히 기존 백신이 P.1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도 문제다. 더욱이 P.1조차도 새로운 돌연변이를 양산하고 있어 앞으로 우려는 더 커질 전망이다.

P.1 연구를 진행 중인 오스왈도크루즈 재단의 필리페 나베카 연구원은 “변이 코로나 자체도 이미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며 “우리가 바이러스의 전이를 막지 못하면, 이들의 진화 또한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문제는 브라질의 바이러스 통제 시스템이다. 오스왈도크루즈재단은 브라질 내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중환자실(ICU) 병동이 현재 꽉 차거나 80% 이상 수용된 상태라고 전했다. 올해 초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산소통 부족으로 환자가 질식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와 비슷한 사고가 계속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최근 시민에 “정정거리지 말고 일터로 돌아가라”는 막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WSJ는 “코로나19로 인한 비극은 브라질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증폭됐다”며 “시스템이 코로나19에 막다른 길에 몰린 나머지 교통사고부터 심장마비까지 다른 환자들도 사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인니 성당서 자살폭탄 테러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 마카사르의 대성당에서 28일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무장경찰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성당 앞을 지키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오토바이를 탄 테러범이 성당으로 진입하려다가 주차 관리인이 이를 저지했다. 이어 폭발이 일어났지만, 테러범을 제외하고 사망자는 없으며 10명이 부상했다. 성당 측은 사건이 미사를 마친 후 휴식 시간에 벌어져 큰 인명 피해가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카사르/로이터연합뉴스

‘수에즈운하 마비’ 장기화 조짐에 유가 급등

최악의 경우 컨테이너 하역 ‘플랜C’ 가동... 조달 막혀 ‘글로벌 공급망’ 비상

수에즈운하 마비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멈춰선 컨테이너선에 담긴 컨테이너 수천 개를 일일이 빼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운하 통행 재개에 수 주일의 시간이 걸려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막대한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사라 마비 수에즈운하 관리청은 운하를 가로막은 22만 톤급 컨테이너선 에버그린호 구축 작업이 수일 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컨테이너 하역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비 청장은 “전날 선박을 끌기 위한 예인선을 투입해 약간의 희망이 있었지만, 낮은 조수가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적어도 수천 개의 컨테이너를 빼내는 ‘플랜C’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현재 수에즈운하에는 구조 전문가들이

투입돼 예인선을 배치하는 등 에버그린호를 빼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해당 선박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만큼 작업은 쉽지 않다. 수에즈운하의 운송 대리인인 레스에이전시 측은 이날 저녁 배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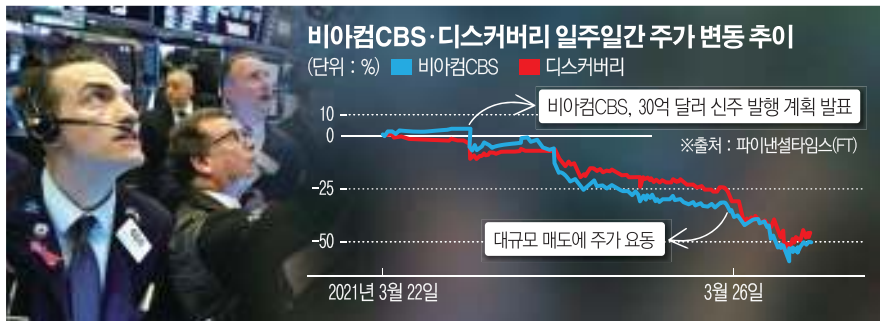
수에즈운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최단 경로로, 현재 전 세계 해상 무역의 12%가 수에즈운하를 지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일부 선박은 아프리카 희망봉 경로로 우회하고 있고, 이미 수에즈운하 근처에 다다른 선박들은 모기업으로부터 화물을 인근 항구에 하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 현재 운하 근처에서 경로를 바꾸지 못하고 머무는 선박만 200척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악화해 플랜C가 발동되면 운하 재가동까지 수주 이상 걸릴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자동차

부품 공급망 등도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 전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수에즈운하 마비 사태 장기화 우려에 4.1% 급등했다. 세계 2위 해운 그룹인 MSC는 이날 “앞으로 몇 달 동안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악화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며 고객사에 피해를 감수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번 사태가 글로벌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자 세계 각국도 팔을 걷어 붙였다. CNN방송에 따르면 미 해군은 현장 조사를 위해 전문가팀을 꾸려 파견했다. 쟈니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일련의 노력에 도움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과 네덜란드 선박 업체들은 이미 현장에서 선박 구조에 동참하고 있고, 수에즈운하가 있는 이집트와 관계가 좋지 않은 터키 정부도 예인선을 급파하겠다고 제안한 상태다.

고대영 기자 kodae0@



‘190억 달러 주식’ 누가 던졌나? ‘미스터리 매도폭탄’ 美증시 발칵

배후로 한국계 ‘빌 황’ 지목

미국 뉴욕증시에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26일 190억 달러(약 21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블록딜 매물이 ‘장중’에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이 요동쳤다. 전례 없는 블록딜에 시장이 발칵 뒤집혔지만 누가, 왜 이러한 거래를 진행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6일 뉴욕증시 개장 전 골드만삭스를 통해 바이두, 텐센트뮤직, 웨이팡후이(VIPSHOP) 등 중국 IT 기업 주식의 블록딜 거래가 이뤄졌다. 규모는 총 66억 달러에 달했다. 이때만 해도 펀드매니저 등 시장 관계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증시 퇴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기관투자자가 대량 매도에 나서는 것으로 생각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다. 정규 장이 열리고 난 이후에도 골드만삭스는 물론 모건스

탠리에서도 블록딜 물량이 쏟아져나왔기 때문. 블록딜 대상 기업들은 중국기업들은 물론 미국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날 하루에만 진행된 블록딜 규모는 개장 전 66억 달러를 포함해 대략 186억 달러에 달한다. 이날 블록딜 물량 폭탄으로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330억 달러가 증발했다. 비아컴CBS 주가는 하루 만에 27% 넘게 폭락해 110억 달러 시총이 날아갔다.

블록딜이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말한다.

CNBC는 이번 블록딜의 배후로 헤지펀드인 아케고스캐피탈매니지먼트 등을 주목했다. 대규모 손실에 따른 마진콜로 인해 아케고스캐피탈이 반대 매매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케고스캐피탈은 한국계 유명 펀드매니저인 빌 황이 세운 패밀리오피스 투자사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블록딜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유혈진압에 13세 소녀도 희생

‘미얀마군의 날’이었던 27일(현지시간) 미얀마 곳곳에서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군부가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난사하면서 쿠데타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28일 미얀마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는 전날 미얀마 전역 40개 도시에서 최소 11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일일 사망자 기준 최대 규모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27명이 사망했고, 그다음으로 큰 도시 만달레이에서 40명이 사망하며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미얀마 군부는 수도 네피도에서 미얀마군의 날 76주년을 기념해 행사를 열면서 한편으로는 시민을 무차별하게 유혈 진압했다. 쿠데타를 주도했던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전날 수도 네피도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군부가 모든 위협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27일(현지시간) 반쿠데타 시위에 참가했다 부상한 시민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양곤/AP뉴스

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로 결심했다”며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 미얀마군의 날 행사에는 일반적으로 수많은 외교관이 참석하지만, 올해는 군부를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소수의 국가 외교관만이 참석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군부가 퍼레이드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시위대는 ‘미얀마군의 날’을 ‘저항의 날’로 부르며 거리로 나왔고 군은 무차별 사격으로 응수했다. 특히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

던 다수의 시민도 군경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소셜미디어(SNS)에 현지인들이 올리는 사망자 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미얀마나우는 만달레이에서 13살의 소녀가 집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양곤에서는 한 살배기 여자아이가 눈에 고무탄을 맞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쿠데타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20명의 미성년자가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부에 의해 살해된 시위대는 26일 기준으로 총 328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전날 사망자 수를 합치면 지금까지 군부 유혈진압으로 숨진 시민은 450명에 육박한다.

군경의 유혈 진압에 대해 미얀만 임시정부 역할을 하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임명된 사사 유엔 특사는 온라인 포럼에서 “이날은 군부 수치의 날”이라면서 “군부 장성들은 3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죽여놓고 미얀마군의 날을 축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당국 “무해지보험 해지 때 계약 살릴 방법 안내하라”

중도해지 환급금 없어 피해 우려
연체 시 대출 연체 등 고지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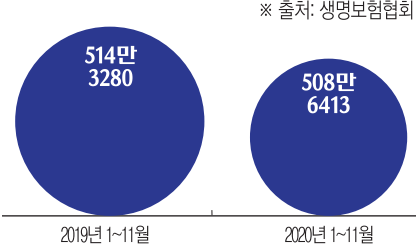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이 무·저해지보험 계약 해지 시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자동대출 안내를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소비자 피해가 특히 큰 점을 우려한 것이다.

2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전 보험사에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계약 실효 해지 처리 시 법규준수 유의사항 통보’ 공문을 보내 보험계약의 부활과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무·저해지환급금보험)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해지하는 경우 금전적 손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현행 상업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법 127조3에 따라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국내 생명보험사 해지환급금 지급
(단위: 건)



금감원은 공문에서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납입연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자가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경우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계약을 부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납입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적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보험계약대출

등을 신청하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처리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지난달 무해지보험 판매실태를 점검한 일환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부터 판매 중인 무·저해지 보장성상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상품명 △상품종류 △요율 검증 의뢰 시기 및 확인일 △판매 시기 △보험료 납입 중 해약환급금 △납입 후 해지환급금 등을 점검했다.

금감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과 관련된 감독규정이 개정된 후 속 조처다. 당국은 지난해 말 이 상품을 설계할 때 표준형과 동일한 수준의 해지환급금 환급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 “저금리시대에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지만, 판매단계에서 높은 환급률을 강조해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는 불안전판매가 증가했다”며 “감독규정 개정 후 문제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의도였고, 점검 후 제재까지 갈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공문을 통해 지도한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경기도 평택시 쌍용차 평택출고센터 모습.

사진제공 쌍용차

쌍용차, 결국 ‘법정관리’ 가나 인수의향서 마감 이틀 남았다

HAAH오토 “시간 더 달라”
회생법원, 31일까지 시한

쌍용자동차가 생사기로 섰다. 유력 투자자인 HAAH오토모티브홀딩스의 최종 투자 결정이 재차 지연된 데다 법원이 이달 말까지 잠재적 투자자와의 인수의향서(LOI)를 내라고 명령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쌍용차가 결국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쌍용차에 LOI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쌍용차의 자금 조달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는 HAAH오토모티브가 25일까지 투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으나 최근 ‘시간을 더 달라’며 입장을 바꾼 데 따른 조치다.

HAAH오토모티브의 전략적 투자자(SI)는 캐나다 1곳, 금융 투자자(FI)는 중동 2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HAAH오토모티브는 이 투자자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쌍용차는 이달 중으로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LOI를 받고 회생계획안을 전체 채권자와 공유해 사전

회생계획(P플랜) 동의를 받을 계획이었다. P플랜의 주요 전제는 쌍용차의 대주인 마힌드라가 감자로 지분율을 낮추고 HAAH오토모티브가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주주가 되는 방안이다.

하지만 HAAH오토모티브가 결정을 미루면서 쌍용차의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 결정 없이는 P플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산은은 쌍용차에 대한 선제적 지원, 채권단 주도 워크아웃 방안 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새 투자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마찬가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5일 한미동맹포럼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쌍용차 문제는) 채권단이 할 일”이라며 “여러 케이스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HAAH오토모티브가 이달 말까지 투자를 결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쌍용차의 법정관리 여부를 고민할 전망이다. LOI 명령은 권고적 성격이기 때문이다. 회생법원은 31일까지 쌍용차가 투자의향서를 받지 못해도 바로 법정 관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수빈 기자 bean@



방문규 수은 행장, 뉴딜기업 지원 약속

방문규(가운데) 수출입은행장이 한국판 뉴딜산업 현장을 찾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방 행장은 “한국판 뉴딜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과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해외투자자금 등 기업이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방 행장이 26일 오후 전남 여수에 있는 2차전지 소재 생산기업 자원산업을 찾아 연구시설과 생산설비를 견학한 뒤 회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수출입은행장은 한국판 뉴딜산업 현장을 찾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방 행장은 “한국판 뉴딜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과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해외투자자금 등 기업이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방 행장이 26일 오후 전남 여수에 있는 2차전지 소재 생산기업 자원산업을 찾아 연구시설과 생산설비를 견학한 뒤 회사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수출입은행

대출 고객에 펀드·방카 끼워팔기 못한다

금소법 따라 1개월 전후 가입 제한
대출 14일 이내 계약 철회도 자유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기 전후 1개월간 해당 은행의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또 특정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대출금에 상관없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지침을 일선 창구에 통지했다. 지침의 주요 골자는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 변경이다. 구속성 판매 행위란 은행이 금융 소비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면서 펀드, 추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투자성 상품과 방카슈랑스 같은 보

장성 상품을 끼워 파는 ‘꺾기’를 뜻한다.

A은행은 꺾기 판매가 금지되는 점검 대상을 당행 신용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에서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돼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 1개월과 받은 후 1개월 동안 투자성,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앞으로 창구 직원은 펀드와 방카슈랑스 등을 판매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대출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야 한다. 펀드 가입 후 1개월 내에 동일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시에는 해당 펀드를 해지해야 한다.

A은행은 또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 금액과 횟수 제한을 없앴다. 과거 A은행은 신용대출 4000만 원 이하, 담보 대출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14일 내 대출 계약 철회를 승인했다. 횟수도 1년에 2번에 최대였다. 하지만 금소법이 시

행되며 이런 대출 금액과 철회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차주는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14일 내에 타 은행에서 더 저렴한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을 시 A은행에 대출 계약 철회권을 행사하고 타 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이때 차주는 대출이 이뤄진 기간의 이자는 A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기업 대출에서 바뀐 것은 담보권 설정 시 피담보채무 범위가 좁은 특정근담보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과거 은행은 한 기업이 2건의 담보 대출을 받은 후 1개의 대출만 상환하지 못해도 2개의 대출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권을 행사했다. 금소법으로 이런 한정근담보가 아닌 특정근담보가 허용되면서 은행은 약정된 한 대출의 채무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행사하게 됐다.

문수빈 기자 bean@

우리은행, 초개인화 금융서비스 제공

‘원뱅크’ 앱, 맞춤상품 추천
투자 성향·시장 상황 반영

우리은행은 자사 앱 ‘원뱅크’의 자산관리 플랫폼을 고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는 고객 개개인별 맞춤 포트폴리오 추천 및 금융자산 분석 기능을 강화한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고객은 오픈뱅킹에 등록된 금융권의 모든 금융자산 분석과 빅데이터로 장기간의 투자성향을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우리로보-알파’는 고객의 투자성향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 이번에 신설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는 개인이 직접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계좌의 수익률 관리와 리밸런싱 알림 및 포트폴리오 변경 추천 기능을 제공한다.

MZ세대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원챗 린지 서비스’는 6~36개월의 기간을 설정해 자금 목표를 세우고 사용자가 이를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메시지를 통해 달성 과정을 관리한다.



우리은행 ‘원뱅크’ 앱.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 개개인별 다양한 금융 니즈에 부응하고 개인화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마케팅 데이터를 접목한 자산관리 서비스 개발 등 우리금융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 협업해 디지털 금융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빈 기자 bean@

SK, 폴란드 배터리 분리막 증설 1조1300억 투자

SK아이이테크놀로지, 단일 투자로 최대 규모
유럽 3·4공장 완공 시 연산 9억㎡ 늘어 15억㎡

SK이노베이션 소재 부문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폴란드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LiBS) 생산 공장 투자에 나선다. 폴란드에서는 분리막 사업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 투자다. 그동안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단행한 단일 투자 가운데서도 사상 최대 규모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폴란드 실롱스크주에 약 1조1300억 원을 투자해 유럽 3·4번째 분리막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분리막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과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필수 소재다. 배터리 원가 중 15~20%를 차지할

만큼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는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이번에 건설하는 폴란드 3·4공장은 연간 생산능력이 각각 4억3000만㎡로 총 8억6000만㎡에 이른다. 3·4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1·2공장 생산능력 6억8000만㎡를 합해 폴란드에서만 연간 총 15억4000만㎡ 분리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투자는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단행됐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구매 요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자사 분리막을 사용한 배터리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면서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



SK아이이테크놀로지 폴란드 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 1공장 건설 현장. 사진제공 SK아이이테크놀로지

다. 시장에서 안전성이 뛰어난 부품으로 평가받으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 4분기 양산에 들어가는 폴란드 1공장과 1분기 가동 예정인 중국 창저우 2공장에서 올해 생산하는 분리막 물량이 수요처를 확보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 분리막의 안전성에 대해 “분리막 두께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면서도 균일한 품질을 구현하는 ‘축차연신’ 기술, 열과 충격에도 변형을 최소화하는 분리막 코팅 기술 등 차별화된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분리막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점도 투자 이유로 꼽았다. 관련 업계는 전 세계 분리막 시장이 지난해 약 40억㎡에서 2025년 약 160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3년부터는 분리막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선제적 투자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폴란드 3·4공장은 올해 3분기 착공해 2023년 말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기존 1공장은 올해 3분기, 2공장은 2023년 1분기에 각각 양산에 돌입한다.

노재석 SK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은 “SK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분리막을 확대 공급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들의 배터리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이라며 “전기차 산업 성장에 기여하면서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26일 'BIS 서밋 2021'에서 강순희(왼쪽부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윤중배 무역보험공사 본부장, 한성수 포스코인터내셔널 전무, 박현영 LG생활건강 전무, 이혜선 코웨이 대표, 김유중 LS일렉트릭 이사가 '반부패 우수기업' 상패를 들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인터

포스코인터 '반부패 어워드' 우수기업 선정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6일 유엔글로벌 콤팩트(UNGC)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개최한 'BIS 서밋(Summit) 2021 반부패 어워드'에서 '반부패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럽추콩(Lum ChewKong) 한국지멘스 대표이사가 축사를 맡고,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겸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이강리 부위원장 등이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반부패 우수기업 선정은 250여 개의 국내 UNGC회원사를 대상으로 5년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 및 부패 리스크를 분석하고 반부패 관련 기준·정책·절차를 마련해 이를 경영 활동 전반에 내재화한 기업을 평가해 이뤄졌다.

UNGC는 유엔(UN)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유엔이 추진하는 지속균형발전에 동참을 장려하고 국제사회윤리와 국제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9년 11월 UNGC 회원사로 가입하고 인권, 노동 기준, 환경, 반부패 등의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이에 대한 이행 활동 및 성과를 기업시민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수기업 선정에 대해 “일찍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ESG 성과관리를 해왔다”며 “특히 인류사회의 일원으로서 50여 개의 진출 국가에서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포용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힘써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무보 '부패방지경영' 인증 이어 '반부패' 수상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최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1 반부패 씨앗'에서 '반부패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UNGC는 기업·학계·시민단체 등 1만4000여개 회원사가 가입 중인 UN 산하 단체로, 반부패·인권·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UN 핵심가치를 기업이 경영 활동에 내재화 하도록 권장·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반부패 어워드는 UNGC 한국협회의 26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렴도·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와 윤리경영 국제인증 여부 등을 심사해 반부패 경영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게 주어졌다.

무보는 그간의 반부패 경영시스템 구축에 힘쓴 것이 어워드 수상으로 이어졌다.

무보는 부패방지 경영현장 제정, 부패방지 전담조직 운영과 내부규정 확립, 부패리스크 진단 및 개선 등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투명경영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국제인증(ISO 37001)'을 획득하기도 했다.

또 임직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가상의 청탁물품을 임직원에게 배송한 후 물품 신고와 반환 등 처리절차를 임직원이 직접 수행해보는 '가상청렴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앞으로도 윤리경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청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직원의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청렴선도기관으로서 공공부문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최태원, 세계 130개 상의에 “협력 강화” 서한

비대면으로 무역·환경 과제 발굴
코로나 이후엔 사절단 파견 희망

최태원(사진)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전 세계 130여 개 상공회의소에 서한을 보내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28일 최 회장이 각국 상의 앞으로 협력 강화 등의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29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서한에서 “전 세계 경제는 코로나로 인해 단기적 충격과 구조적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 상의가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로 물리적 왕래는 어렵겠지만 각국 상의가 비대면 교류를 통해 무역, 환경, 기술 등 현안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향후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비즈니스 사절단 파견,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상호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제이 방가 국제상업회의소(ICC) 회장에게는 “ICC는 세계 최대 민간경제단체로서 UN, G20, OECD, WTO 등 국제기구에 정책제언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무역규범 수립 과정에 대한상의와 ICC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중국과 일본 상의에 보낸 서한에서도 경제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다. 앞서 수잔 클락 미국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김대영 기자 kdy@

HMM, 선박 희망봉 우회 결정

사고로 막힌 수에즈운하 대신
아프리카 대륙 돌아서 가기로
기간 늘고 해적 출몰 감수해야

국내 최대 원양 컨테이너 선사 HMM이 이집트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대신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을 우회하기로 했다.

28일 덴마크 해운전문지 쉬핑와치는 HMM이 희망봉을 우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HMM의 2만4000TEU급 스톡홀름호·로테르담호·더블린호와 5000TEU급 부정기선 프레스티지호는 수에즈운하를 통과할 예정이었다.

수에즈운하는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그린호가 23일 좌초되

면서 양방향 통항이 완전히 막힌 상태다.

수에즈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주요 무역 항로 중 하나다. 세계 무역 물동량 중 13%, 해상 운송 원유 10%가 이곳을 지난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도 이번 사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희망봉을 돌아 이동하면 운송 기간이 일주일 이상 늘어난다. 해적 출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수에즈운하가 막혀 희망봉을 돌아 이동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협회, HMM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에즈운하 통항중단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김대영 기자 kdy@

수에즈운하 우회로 '희망봉'



수에즈운하를 가로막은 컨테이너선을 뚫내기 위해 근로자들이 제방 옆을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LG 올레드 에보, 을 세계 최고 TV 될 것”

북미·유럽 매체 호평 잇따라



LG전자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LG 올레드 에보(모델명: G1·사진)가 북미, 유럽 등 해외 유력 매체들로부터 연이어 호평을 받고 있다. LG 올레드 에보는 차세대 올레드 패널을 탑재하고 정교한 파장의 빛을 내 기존보다 더 선명하고 밝은 화질을 표현한다.

28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유력 IT 전문매체 디지털트렌드(Digital Trends)는 LG 올레드 에보를 “밝고, 아름답고, 스마트하다”며 “올레드 TV의 중요한 진일보를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미국 리뷰 전문매체 리뷰드닷컴(Reviewed.com)은 LG 올레드 에보를 “사람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가장 멋진 제품”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최고 TV가 될 제품”으로 소개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Forbes)는 차세대 올레드 패널을 적용해 밝기와 색, 성능이 모두 개선됐다고 설명하며 “어느 거실에도 어울리는 아름다운 디자인은 물론이고 최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화질을 선사한다”고 극찬했다.

영국 IT 매체 왓하이파이(What Hi-Fi)는 “지금까지 테스트한 LG 올레드 TV 가운데 단연 최고”라며 5점 만점을 부여했다. 특히 “완벽한 블랙과 더 밝은 화질로 아름답고 선명한 영상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멋있게
with NH농협은행



설레게
with NH농협생명



놀랍게
with NH농협손해보험



새롭게
with NH투자증권

금융에 색을 입히다

당 신 이
색 다르면
금 융 도
색 다르게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이 광고는 NH농협금융 계열사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출연했습니다.



든든하게
with NH-Amundi자산운용



싱그럽게
with NH저축은행



즐겁게
with NH농협캐피탈



산뜻하게
with NH농협리츠운용



다정하게
with NH벤처투자



올바르게
with NH농협카드

〈아이폰 제조 업체〉

폭스콘 ‘전기차 위탁생산’ 속도

두산인프라코어, 100톤급 굴착기 출시

몽골·칠레 등 수주 계약

두산인프라코어가 100톤급 굴착기(모델명 DX1000LC·사진)를 개발하고 전 세계 시장에 동시 출시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28일 새 굴착기 출시와 동시에 몽골, 칠레 등에서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플래그십 모델인 이 제품은 두산인프라코어가 글로벌 플랫폼 전략을 통해 유럽, 북미 지역과 한국, 중국, 신흥시장 등에 동시 출시하는 첫 번째 굴착기다.

이 제품의 최대 버킷 용량은 6.80㎥다. 기존에 가장 큰 모델이었던 80톤급 굴착기 버킷 용량(5.58㎥)보다 약 1.2배 크다.

또 전자식 통합 유압 시스템과 독자 개발한 연비 최적화 시스템을 통해 연비 향상과 손실 없는 힘과 속도로 최적화됐다. 높은 수준의 엔진 후처리 기술들을 활용해 유럽의 ‘스테이지5(Stage-V)’ 배기규제와 미국 ‘티어4



파이널(Tier4 Final)’ 배기규제도 충족했다.

출시와 동시에 칠레와 몽골에서 굴착기 수주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칠레의 한 광산업체가 1대, 몽골의 한 금광·철광 운영업체가 2대를 각각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형 굴착기 시장 규모는 연간 약 1000대 수준으로 석산, 광산, 대형 건설사들이 주요 고객이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이번 모델 출시로 수익성 높은 초대형 라인업을 더욱 강화해 시장 내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美 LCD공장, 車생산라인 전환
2023년 말부터 본격가동 예고

IT기업 자동차시장 진출 확산
車업계 위탁생산 전환 가속화

애플 아이폰을 제조하는 폭스콘이 BEV(전기차) 위탁 생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폭스콘의 위탁 생산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완성차 업계의 기존 사업 방식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28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 업체 대만 훙하이 정밀공업(폭스콘)은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미국 위스콘신에 있는 폭스콘 LCD 공장을 전기차 생산라인으로 전환해 2023년 말부터 가동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연구개발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생산기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



폭스콘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전기차 플랫폼 ‘MIH’.

블룸버그

데, 7월 내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애플의 아이폰 생산에 주력하던 폭스콘은 지난해 10월 전기차 위탁 생산에 나서겠다고 처음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스마트폰 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 전망이 밝은 전기차 사업을 택한 것이다.

류양웨이 회장은 “자동차 동력이 엔진에서 모터로 바뀌면서 정보통신 기업이 신시장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회사의 전기차 사업 규모는 현재 주력 사업인 전자제품 위탁생산을 웃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폭스콘은 이와 함께 전기차 전용 플랫폼 ‘MIH’도 공개했다. MIH는 개방형 맞춤 플랫폼으로, 규격에 맞춰 만든 모듈을 완성차 업체에 조달하는 방식이다. 폭스콘은 이 플랫폼을 활용한 위탁생산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폭스콘은 ‘중국판 테슬라’로 불리는 바이튼의 전기 SUV ‘M-바이트’를 내년 1분기부터 위탁 생산하기로 했고, 중국 지리자동차와도 생산 전문 합작사를 설립했다. 미국에서도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Fisker)와 연 25만대 이상의 물량을 공동생산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업계 일각에서는 폭스콘의 미국 공장 건설을 애플과의 협업까지 염두에 둔 선택으

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애플카’ 생산 역량을 갖추려 한다는 해석인데, 폭스콘은 일단 이를 부인한 상태다.

이미 위탁생산 방식은 자동차 업계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세계적인 부품사 마그나(Magna)는 계열사를 통해 오스트리아에서 BMW, 메르세데스-벤츠, 재규어, 토요타 일부 차종을 위탁 생산 중이다.

국내에서는 동희오토가 기아 모닝의 생산을 맡고 있고,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부품사 명신은 4월부터 전기차를 위탁받아 제작할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광주글로벌모터스’도 9월부터 현대차의 경형 SUV를 위탁 생산한다.

위탁 생산은 제조사 입장에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다양한 품종을 탄력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산 시설 관리와 노사 관계처럼 복잡한 문제에서도 자유롭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폭스콘의 위탁생산이 본격화하면 기존 완성차 업체에도 적잖은 파급력이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폭스콘이 현지 생산을 추진 중인 미국은 리비안, 루시드 등 다수의 전기차 스타트업이 있어 협력 기회가 많다”며 “폭스콘이 위탁생산을 통해 전기차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면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공정을 내재화하던 완성차 업체의 사업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1000만 고객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DB금융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 DB금융네트워크



R&D 투자·범위 늘리는 SK하이닉스

작년 3.4조 투입 주력사업 외 낸드·이미지센서 투자 급증

SK하이닉스가 매년 연구·개발(R&D) 지출을 늘리며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인텔 낸드 사업 부 인수를 비롯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열중했는데, R&D 실적에서도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28일 SK하이닉스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총 16개의 연구개발 과제를 마쳤다. 3년 전 연구개발 실적(6개)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8년 7개, 2019년 9개 등 SK하이닉스의 연구개발 실적은 매년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무형자산을 포함한 연구개발비엔 총 3조 4821억5500만 원이 투입됐다. 2019년과 비교하면 약 3000억 원 늘어났고, 2018년에 비하면 6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연구개발 내용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의 연구개발 실적은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D램 위주 개발에 일부 낸드플래시가 섞여 있는 형태였다.

그러나 지난해 연구개발 실적에선 낸드 플래시 연구 과제가 대폭 늘어났고, 최근 후발주자로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이미지센서(CIS) 관련 과제도 수 개 이름을 올

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작년 연구개발 실적 중 16개 중 절반에 가까운 7개가 낸드플래시 관련이었다. 2019년 연구개발 내용 중 낸드플래시 관련 과제는 2개밖에 없었다.

특히 176단 낸드의 경우, 3세대 4D 제품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적층 기술을 적용했다. 낸드 사업에서 이 제품을 상용화한 건 마이크론 이후 SK하이닉스가 두 번째다.

이미지센서 관련 과제도 4개로 적지 않았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일본 소니와 삼성전자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입해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다. 실제로 이미지센서 연구개발 실적은 2018년까지만 해도 없다가, 2019년 일본 도쿄에 CIS R&D센터를 개소한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메인 매출처인 D램 사업에 열중하되, 낸드플래시와 이미지센서 등으로 주력 사업 범위를 넓혀가는 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CEO) 사장은 최근 세계전기전자학회(IEEE)의 국제신뢰성심포지엄(IRPS)의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현재 176단인 낸드를 600층까지 적층할 수 있다”며 낸드 기술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노우리 기자 we1228@

보이스피싱 잡는 후후앤컴퍼니, KT의 ‘아픈 손가락’

물적분할 이후 5년째 적자 늘
매출도 감소… 72억 손실처리
착한 기업이지만 수익성 ‘숙제’

KT의 자회사 KT CS가 지난해 후후앤컴퍼니에 대해 72억 원 규모로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2016년 물적분할한 후후앤컴퍼니가 KT CS의 골칫덩이로 전락한 셈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의 자회사인 KT CS는 지난해 후후앤컴퍼니에 대해 72억600만 원의 손상

차손을 인식했다.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 징후를 따져본 뒤 손상평가를 시행한 결과다. 손상차손은 포괄 손익계산서의 기타비용으로 처리된다.

KT CS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며 후후앤컴퍼니에 지속적인 영업손실이 발생해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후앤컴퍼니의 장부가액은 기존 83억 원에서 11억6000만 원으로 내려앉았다.

후후앤컴퍼니는 KT 그룹사 KT CS가 개발해 2013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6

년 물적분할해 별도법인으로 출범했다. 스팸차단 앱 서비스 업체인 후후앤컴퍼니는 전화번호, 이용자 참여 정보를 바탕으로 발신 전화번호를 식별해 스팸, 보이스피싱 등 악성 전화번호를 사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후후앤컴퍼니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맞서는 ‘착한’ 기업이지만, ‘수익성’이라는 과제는 몇 년째 쉽게 풀지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 후후앤컴퍼니의 당기순손실 규모는 11억9000만 원이었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8억9000만 원, 1억2000만 원, 3

억7000만 원, 26억8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 때문에 법인 설립 뒤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는 50억 원을 넘어섰다.

영업수익(매출액)도 2년 연속 축소됐다. 2018년 56억4000만 원이던 영업수익은 2018년 56억 원, 2019년 47억5000만 원으로 뒷걸음질쳤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실적 부진이 이어진다면 추가 자금 수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자본 총계는 29억9000만 원으로 2019년 56억8000만 원에서 크게 줄었는데, 지난해 당기순손실

이 26억80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자본이 손실을 메우는 데 고스란히 쓰였고 추가 자본 유치는 없던 것으로 풀이된다.

후후앤컴퍼니는 지난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데 대해 “사용자 규모 확대 및 서비스 성장을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기술개발·마케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번호안내 114 서비스를 KT에서 이관받아 지난해 구축이 마무리 됐다”며 “올해는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김종우 모토브 대표는 “옥외광고가 디지털 사이니지로 바뀌고 있다”며 “모토브는 전국에서 디지털 광고를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택시표시등을 광고판으로 날씨·주식 정보 등 다 가능”

인터뷰

김종우 모토브 대표

IoT센서 150종 빅데이터 수집
점포 1km 안에 들어서면 송출
화상센서로 효과 실시간 가능

택시 지붕 위에 디지털 광고판이 달려 있다. 보행자 눈높이와 딱 맞아 시야에 쉽게 들어온다. 게다가 실시간 날씨 정보까지 알려준다. 그야말로 ‘맞춤형 광고’다.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모토브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택시표시등 자리에 스마트 미디어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반(도시)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광고판에는 32개의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숨어 있어, 유동인구부터 조도·미세먼지·유해가스·교통상황 등 150여 종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차세대 광고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는 김종우 모토브 대표는 “최근 옥외광고 대부분이 디지털 사이니지로 바뀌고 있다”며 “모토브는 전국에서 디지털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모토브는 올해부터 디지털 옥외광고(DOOH)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센서를 통해 수집한 위치·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딱 맞는 광고를 표출하겠다는 것이다.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에는 선크림 광고를, 날씨가 더우면 아이스크림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것. 또한, 증권사는 실시간 주식 정보를, 마스크 회사는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등 정보 기반의 브랜드 콘텐츠도 제공할 수 있다.

소상공인과 상생할 방법도 있다. 김 대표는 “모토브는 소상공인이 광고할

수 있는 플랫폼 중 하나”라며 “위치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점포 반경 1km에 택시가 들어섰을 때 해당 매장의 광고를 띄우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골목길은 소상공인을 위한 곳”이라며 소상공인에는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화상 센서 덕분에 광고 효과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김 대표는 “옥외광고의 가장 큰 약점은 효율 측정이 되지 않는단 것”이라며 “모토브는 주위에 몇 명이 있고(유동인구), 광고 인식률이 몇 퍼센트인지 화상 센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 세계 모빌리티 광고 서비스 시장은 몸집을 불리는 모습이다. 다만 김 대표는 모토브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 세 곳 정도고,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모토브가 가장 먼저였다고 설명했다.

모토브 광고판을 단 택시는 현재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서만 마주칠 수 있다. 운행 대수는 아직 700대 수준이지만, 올해 안에 4000~5000대까지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 김 대표는 “올해는 본격적으로 장차 대수를 늘려 광고 매출을 키우고자 한다”며 “이제 스케일업만 남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 대표는 ‘엔지니어’이자,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경험한 창업가다. 교량관리시스템 기업, 핀테크 보안 솔루션 기업 등을 거쳐 모토브에 합류했다. 그는 “모빌리티란 큰 축을 바탕으로 모빌리티 광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모토브는 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기업공개(IPO)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다원 기자 leedw@

새 사명 단 쌍용C&E “종합환경기업 도약”

시멘트 사업 중심 벗어나
환경 사업 비중 50% 목표
‘Green2030’ 경영 본격화

쌍용양회가 쌍용C&E란 새 이름을 달고 종합 환경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

쌍용C&E는 지난 26일 주주총회를 통해 사명 변경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쌍용C&E는 신규 사명 선포식을 열고 기업 명칭 변경을 발표했다. 기존 시멘트사업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2025년까지 환경사업의 비중을 EBITDA의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새 사명인 쌍용C&E는 기업 정체성인 ‘쌍용’에 시멘트(Cement)와 환경(Environment)의 머리글자를 더해 만들어졌다. 친환경 사업을 미래 핵심 가치로 삼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겠다는 임직원의 의지도 담았다.

쌍용C&E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사업영역을 환경 분야로 확장하고, 친환경 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 종합환경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Green2030’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났다.

Green2030에는 △탈석탄, 친환경 자가 발전 설비 마련 등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사회공헌활동 강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준법·윤리경영 생활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체계 확보 등 ESG



쌍용양회는 사명을 ‘쌍용C&E’로 바꾸고 환경사업 비중을 5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쌍용C&E가 26일 신규 사명 선포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쌍용C&E

경영 실천을 위한 추진 전략과 주요 목표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전담조직인 ESG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혁신 활동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쌍용C&E는 탈석탄을 실현하고,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도 이어간다. 2030년까지 유연탄을 폐플라스틱 등의 순환자원으로 전량 대체해 국내 시멘트 업계 최초로 석탄 사용량 제로(탈석탄)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앞서 쌍용C&E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연료인 유연

탄을 순환자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관련 인프라도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2019년에는 연간 150만 톤 수준이던 유연탄 사용량을 지난해 100만 톤까지 줄였다.

홍사승 쌍용C&E 회장은 “지난 60여 년간 시멘트사업으로 한길을 걸어온 쌍용C&E가 사명 변경을 기점으로 깨끗한 미래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친환경 사업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과 경영 투명성 제고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중기부 ‘소상공인 재기’ 1000만원 지원

업종전환·재창업 컨설팅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재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한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지원(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지원)’에 참여할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업종전환과 재창업을 희망하는 재기 소상공인의 특화 아이템 개발, 마케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해 자부담 50% 시 최대 1000만 원을 국비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온라인·배달 판매, 밀키트 제조와 같은 사업방식 개선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도전을 위해 경영, 마케팅, 세무, 노무 등 전문가 자문을 별도 비용 없이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1차 공고는 상품 개선, 온라인 판로 등을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450명과 음식점업에 재도전하는 소상공

공인의 설비·임차료 등 초기 투자 비용 감과 메뉴·브랜드 개발 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민간 공유주방 인큐베이팅’에 입점할 150명을 선정한다.

신한금융회맹재단에서는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지원을 신청·접수한 소상공인 중 고용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수급(예정자 포함)하고 ESG 경영 또는 실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00명에게 6개월간 매월 100만 원 이내 임차료와 개선비용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 경영(실천 활동)을 하는 100명은 신한금융회맹재단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중기부의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지원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박지형 국장은 “올해 신설된 사업화 지원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현대리마트, 화훼농가 돕기 ‘그리너리 프로젝트’ 진행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의 토털 인테리어 기업 현대리마트는 ‘그리너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서다.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용인시 화훼농가 연합회’와 협업, ‘그리너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현대리마트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학행사·졸업식·결혼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봄을 맞아 꽃과 식물을 활용한 매장 연출 및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 일상 속 화훼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리너리 프로젝트는 생명력, 자연을 뜻하는 희망적인 단어 ‘그리너리’에서 착안했다. 현대리마트가 용인시의 화훼농가에서 재배한 꽃과 나무 1톤(t)을 직접 매입, 꽃 등을 활용해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직영 전시장 15곳에 ‘그리너리 포토존’을 운영한다. 박소은 기자 gogumee@

피 터지는 만두 전쟁 ‘비비고’ 뒤쫓는 ‘얇은피’



코로나 팬데믹이 몰고온 집밥 열풍에 ‘만두 전쟁’이 더 치열해졌다. 만두는 라면과 함께 코로나 집밥 시대에 대표적인 필수 가정간편식(HMR)이 되면서 한층 더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선 국내 만두 시장에서 CJ제일제당은 시장 점유율 절반에 육박하며 ‘만두 1등 기업’의 자리를 공고히 했다. 얇은 피를 앞세운 풀무원 만두도 1000억 브랜드에 등극하며 무서운 기세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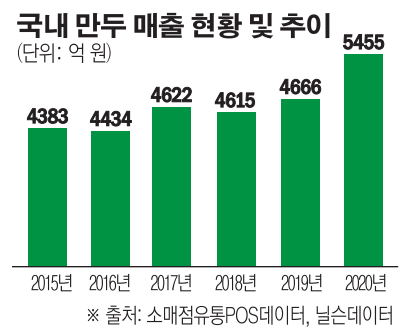
28일 시장조사 전문회사 닐슨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만두 시장 규모는 5455억 원으로 전년(4667억 원) 대비 17% 가까이 증가해 수년만에 두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부동의 1위를 굳힌 CJ제일제당의 국내 비비고 만두 매출은 3600억 원으로 시장점유율 46%를 기록하며 전년의 43.6%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연 매출 1조원 벽을 깨며 국내 식품업계 역사를 새로 쓴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는 국내외 마케팅을 강화하며 매출을 한층 더 키운다는 방침이다.

풀무원도 지난해 시장 점유율 20% 내외로 전년 점유율(16.2%)보다 4% 포인트 가까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풀무원의 ‘얇은피파란속 만두’ (이하 얇피만두)가 크게 히트하면서 지난해 풀무원의 만두 매출은 1370억 원을 기록, 처음으로 ‘1000억 브랜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얇피만두 출시 전 2018년보다 115% 성장한 수치로,

HMR 부상 작년 매출 5500억
CJ제일제당 ‘비비고’ 점유율 46%
풀무원 ‘얇은피파란속’ 인기
20%로 ‘1000억 브랜드’ 등극



얇피만두로만 전체 냉동만두 매출을 2년 만에 2배 이상 끌어올린 셈이다.

몇 년 전만 해도 업계 중위권에 머물던 풀무원은 2019년 3월 출시한 ‘얇은 피 만두’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형성하며 단숨에 만두 시장 2등 기업으로 치고 올라왔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 이후 집밥족 증가에 힘입어 풀무원의 점유율 상승세는 한층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풀무원은 냉동만두 고정장 배경으로 ‘얇피만두’의 히트뿐만 아니라 MZ세대와의 소통도 짚었다. 당장은 40·50세대보다 구매력이 떨어지지만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5·10년 뒤 핵심 소비층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고 이들 MZ세대 공략에 힘을 쏟았다는 설명이다.

풀무원은 지난해 ‘얇피만두 웰드라마’를 제작해 인스타그램 등에 선보였다. 얇피만두 캐릭터 ‘얇피’와 ‘교자’를 신입사원으로 등장시켜 젊은 직장인들을 겨냥한 콘텐츠를 내놓은 것이다. 총 460만 화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18만여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릴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풀무원은 이와 동시에 온라인 판매도 강화했다. 풀무원의 냉동만두 온라인 매출 비중은 2%에 불과했지만, 얇피만두 출시 첫해 12%로 치솟았고 지난해 22%까지 온라인 매출 비중을 확대했다. 올해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3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풀무원으로서는 MZ세대와 소통하고 지지를 받는 히트상품을 만들어 지속적인 만두 시장 내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는 ‘10년 대계’ 전략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원조 고향만두로 유명한 해태제과도 최근 고향만두 ‘녹두지집’과 ‘고추지집’ 등 신제품을 내놓고 시장 확대에 나선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고향만두에 적용한 원조 기술을 바탕으로 특색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투기는 이달 초 자사 ‘열라면’의 화끈한 맛을 만두로 구현한 ‘열라면만두’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 제품은 100% 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했는데 진공 반죽을 이용해 부드럽고 쫄깃한 만두피가 특징으로, HMR 시장의 강세를 발판 삼아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꽃밭이야, 도서관이야?

스타필드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이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봄날의 시’ 행사를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튤립, 수선화 등 아름다운 꽃으로 도서관 곳곳을 낭만적인 봄 분위기로 꾸몄으며, ‘봄을 위한 시’ 코너에서 봄과 어울리는 다양한 시를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오경아 가든 전문디자이너의 손길이 더해진 화단은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한국화협회를 통해 생화를 직접 구매했다. 사진제공 신세계프리미어

블랙수박·감홍사과·친들미쌀 롯데마트, 국산 농산물 키운다

K품종 육성 프로젝트

롯데마트가 신도불이 전략인 ‘K-품종 육성 프로젝트’로 1000억 매출 달성에 도전한다.

롯데마트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사용료를 줄이고, 농업 한류 확산을 위해 K-품종 프로젝트에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해까지 총 41종의 국산 품종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선보인 바 있으며, 소비자의 반응이 좋아 올해 본격적인 K-품종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롯데마트의 2021년 ‘K-품종 육성 프로젝트’ 목표는 상품 수 131개 확대, 매출 1000억 달성으로 국산 품종 농산물의 매출을 14.8%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사정에 눈이 밝은 산지MD(상품기획자)를 10명에서 16명으로 늘렸다. 국산 품종 상품이 전국적인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생산되는 지역에 만 일부 유통되는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별 산지MD를 투입해 신상품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종묘사와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종자 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통 노하우를 공유하고 생산, 유통까지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국산 품종의 농산물의 경우 구매를 약속하는 ‘계약재배’를 통해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제공하는 등 농민들이 국산 품종 생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할 방침이다.

앞서 2020년에 선보인 국산 신상품 ‘블랙위너수박’은 3자협업모델 (롯데마트, 우수농가, 종묘사)을 통해 롯데마트가 종자부터 우수농가 계약재배, 매장 판매까지 전 분야에 관여해 발굴한 상품이다. 과피가 얇고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2020년 6월과 7월 2개월 동안 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감홍사과’는 우수한 당도를 장점으로 내세운 ‘황금당도’ 브랜드 상품을 개발해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6억 원가량 판매하는 등 국산 품종 재배 농가 판로를 확대했다. 충남 서천에서 재배되고 있는 ‘친들미’〈사진〉 쌀도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12억가량 판매가 이뤄졌다. ‘친들미’는 부드러운 식감과 찰기가 좋고, 쌀벌레와 병충해에 강한 국산품종이다.

정재우 롯데마트 상품본부장은 “국산 품종은 외국 품종과 달리 사용료가 없어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된다”며 “우수한 국산 품종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MZ세대도 한 잔... 젊어진 막걸리

‘지평 이랑이랑’ 흡술로 인기
CU ‘테스형 막걸리’ 내달 판매
이마트24 장수와 메모지 협업



MZ세대의 ‘흡술’, ‘혼술’ 문화에 힘입어 국내 막걸리 시장이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에 발맞춰 MZ세대를 겨냥한 막걸리를 출시하고, 관련 굿즈를 선보이는 등 MZ세대 잡기에 나섰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0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주의 출고 금액은 2017년 397억 9500만 원에서 2019년 531억 2800만 원으로 2년 만에 34%가량 커졌다. 전통주 내에서 탁주(막걸리)의 출고 금액도 2017년 86억 7400만 원에서 2019년 119억 500만 원으로 37%가량 상승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주문 시장이 확장되고 젊은층에서 프리미엄 탁주 음용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전통 막걸리 제조업체 지평주조는 지난해 전년 대비 매출이 34% 성장해 308억 원을 기록했다. 지평주조는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식당, 주점 등 업소 매출이 대폭 감소한 상황임에도 젊은 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지평 이랑이랑’ 출시 등 신제품 라인업 개발과 흡술

트렌드에 맞춰 대형마트와 편의점 중심으로 채널 영업을 강화한 전략이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고 풀이했다.

2015년 주력제품 ‘지평생쌀막걸리’는 알코올 도수를 5도로 낮춰 리뉴얼하면서 막걸리 업계의 저도주 트렌드를 형성하기도 했다. 2015년 매출이 45억 원이었던 이 제품은 2017년 110억 원, 2018년 16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편의점 CU의 막걸리 매출 신장률도 젊은층의 선호도에 힘입어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 막걸리 매출 신장률은 19.2%, 2019년 16.7%, 지난해 23.2%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29.8%로 최근 몇년새 가장 높은 매출신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근 3년간 CU의 막걸리 연평균 매출 비중 변화를 보면 2018년 20대 비중은 3.5%에서 올해 6.3%로 증가했고 30대도 5.4%에서 9.3%로 거의 두배씩 늘었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젊은 세대를 겨냥

한 특별한 막걸리 제작, 막걸리 굿즈 등을 선보이며 수요 확대를 꾀하고 있다. 편의점 CU는 가수 나훈아의 유행곡 ‘테스형’을 모티브로 만든 ‘테스형 막걸리(2000원)’〈사진〉을 업계 단독으로 다음 달 2일부터 판매한다.

노래 테스형은 현대인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삶의 애환을 묻는 내용을 풀어낸 트로트로,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땀’으로 사용될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테스형 막걸리는 포천시 이동면의 천연 지하 암반수를 활용해 수작업으로 생산한 밀입국으로 만든 상품이다. 밀로 만든 누룩을 뜻하는 밀입국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담백하고 묵직한 깊은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24는 막걸리를 즐기는 소비층이 젊어지면서 장수막걸리 협업 상품인 ‘플레너’와 ‘점착메모지’를 선보였다. 장수막걸리 플레너는 막걸리 병 모양을 형상화한 제품으로, 막걸리 패키지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했다. 장수막걸리 점착메모지는 막걸리를 떠올리게 하는 주막 차림판으로 디자인했다.

신세계백화점 전통주 전문매장인 ‘우리술방’은 울초 요거트처럼 떠먹는 막걸리 ‘배꽃필무렵 세트’를 설 선물로 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탁주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 제품은 요거트나 아이스크림처럼 손가락으로 떠서 먹는 술로 관심을 끌었다.

박미선 기자 only@

KGC인삼공사, 환절기 건강 지키기 ‘시작해봄’

정관장 봄 맞이 행사

KGC인삼공사가 봄 시즌을 맞아 ‘시작해봄’ 프로모션을 4월 11일까지 진행한다 고 28일 밝혔다.

정관장 ‘시작해봄’ 프로모션은 녹용농축액 함량을 증대한 ‘정관장 천복’과 환절기 호흡기 건강을 위한 ‘홍삼톤창’을 중심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정관장 천복’의 △천복정 △천복정편 △천복톤 △천복W △천복원직세트 △천복강환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세트 구성에 따라 ‘정관장 천복W’ 5포, 10포를 증정하고, 홍삼톤창 30포와 60포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각각 ‘홍삼캔디후(40g)’ 2세트, 4

세트 증정한다.

또한, 정관장의 인기 제품인 △홍삼정 △홍이장군 △알파프로젝트 7종 △근베이스 에센셜 케어 9종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행사 기간내 정관장 제품을 15만원 이상 구매하거나 정관장 포인트를 사용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정관장 쿠폰을 추가 지급한다. 1등(3000명) 3만 점, 2등(2만명) 2만 점을 제공하며 이벤트에 참여한 전원에게는 1만 점을 지급한다.

정관장 ‘시작해봄’ 프로모션은 전국 정관장 로드샵, 백화점 및 대형마트, 정관장몰 등에서 진행한다.

김혜지 기자 heyji@

“2분기 반등장… 반도체·2차전지 유망, 제약은 신중”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증시 전망

1분기 국내 증시가 1월의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횡보장으로 아쉬움을 남긴 가운데 2분기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모두 긍정적이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만큼 주식시장도 본격적인 반등장에 진입한다는 전망이다. 다만, 미중 분쟁과 금리인상은 주가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업종은 긍정적으로 본 반면 그동안 크게 오른 성장주, 제약·바이오주는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다.

28일 이투데이에는 주요 5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2분기 증시 전망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5명의 센터장 모두 “2분기에 본격적인 반등장세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특히 KB증권은 2분기에 코스피 지수가 최대 340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평균적으로 3200선이 상단이 될 것으로 봤다. 하단은 2800선에서 제한된다는 전망이다.

다만, 유상창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4월에는 완만한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나, 5~6월에는 미국과 중국의 긴축우려와 세금 인상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조정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금리상승vs경기회복 = 역시 2분기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2분기 증시 전망

	이경수 메리츠증권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노근창 현대증권	신동준 KB증권	김지산 키움증권
코스피	2950~3200	2940~3280	2800~3200	2800~3400	제시 안 함
리스크 요인	- 미중 갈등 불확실성 - 원자재 가격 불안	- 미중 긴장 - 원자재 가격 부담 - 시장금리 상승	- 안전자산 선호 현상 - 국제금리 상승	- 미중 긴축 리스크 - 세금 인상 리스크	- 미중 갈등 - 유럽발 코로나 3차 확산 우려 - 국제금리 상승
기회 요인	- 기업 실적 개선 - 성장주 풀림 해소	- 실물 경기 회복 가속화 - 금리상승에 시장 적응 - D램 반도체 고성장매력 상승	- 유동성 장세 → 실적 장세	-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정책'	- 경기 수출 모멘텀 -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정책' - 이연수요 회복수요 현실화
유망 종목	반도체, 자동차, IT S/W	반도체, 금융, 친환경 관련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IT S/W, 게임, 철강	- 성장주에 짧은 기회 - 통신, 유틸리티 등 방어주	- 성장주 → 가치주 - 철강, 산업재, 은행, 2차전지
피해야 할 종목	정유,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음식료, 유틸리티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	5월 이후 기술성장주	바이오, 인터넷 게임

유동성 장세서 실적장세 들어설 것… 미중 분쟁·금리 큰 변수

美정부 정책發 철강·화학 긍정적… 성장주·게임주 주의 필요

증시에서 우려할 점은 ‘금리’다. 결국 시장이 금리 상승 속도를 받아들이지 않을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가 상승하려면 조정을 촉발했던 금리인상 상승속도가 둔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모두 미중 관계와 원자재 가격이 증시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실적 개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

가도 반등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실적 컨센서스(3개 기관 이상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213곳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동기보다 83.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근창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관의 조정도 충분히 거쳤고, 미국 기준금리 상승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투자 수익률이 매력적이라는 시각이다”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2분기는 기업실적 시즌 진입에 따른 주가 모멘텀 확보 시기로 판단한다”면서 “실적에 따른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는 심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가 본격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시작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특히 인프라 관련 투자로 관련 업종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유 센터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 정책’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전통 인프라 관련주, 5G인프라, 친환경 인프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성장주보다 실적주 = 2분기에는 성장주보다 실적주가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판단했다. KB증권은 4월에는 금리 안

정화에 따른 ‘성장주’에 짧은 기회가 있지만, 5월부터는 성장주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센터장은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매력적이고,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투자 감안하면 철강, 산업재, 화학 업종이 유망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 2차 전지 등 지난해 강세장을 이끌었던 업종이 2분기에 반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들은 성장주보다는 실적이 좋아지는 실적주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노 센터장은 “실적이 좋아지는 반도체 업종과 주가 조정을 거친 2차 전지가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고, 이 센터장도 “반도체, 자동차, IT 소프트웨어 업종이 좋다”고 조언했다.

경계해야 할 종목은 ‘기대감으로만 오른 종목’이다. 특히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가가 크게 반등했던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 센터장은 “엔택트에서 컨택트로 전화되면서 밸류에이션(가치)이 높아진 성장 업종과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노 센터장 역시 “업종을 불분하고 기대감으로 간 종목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박기영 기자 pgy@

손엄지 기자 eom@

低금리·조정장에 개인 회사채 몰린다

개인, 이달 들어 1750억 매수 수익률 3%만 돼도 ‘귀한 몸’ 전문가 “A등급 관심 가져볼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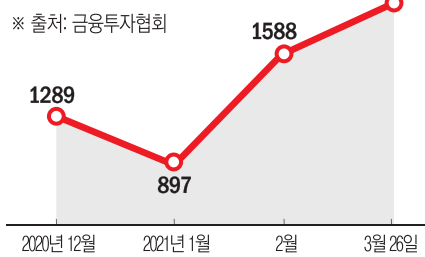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에 이어 회사채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인플레이션(Inflation)과 금리 상승 국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투자 행보다.

하지만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은행금리보다 우량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이 더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금리 변동성 확대에 취약한 크레딧 시장에서도 ‘스마트 개미’들이 뭉치듯 몰리고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장외시장에서 개인의 회사채 순매수 규모(26일 기준)는 3월 들어 1705억 원가량이다. 2월 한 달 순매수(1588억 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3월 1130억 원보다도 620억 원가량 많다.

서울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PB(프라이빗뱅크) 관계자는 “최근 한진칼의 경우, 2시간도 되지 않아서 마감됐다. 요새 회사채 수익률 3%만 돼도 뒤도 안돌아보고 투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식시장도 조정 국면인데다가 은행에 예치해도 금리가 낮으니 신용등급 BBB만 돼도 관심가는 투자자들이 꽤 많다”고 덧붙였다.

개인투자자 회사채 장외시장 순매수 추이



IB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연 0.5%에 머물면서 개인들은 수익률 높은 확정금리상품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며 “최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상승으로 기업 신용위험 확대를 우려한 기관투자자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큰 손 불개미들이 (변동성이 큰 증시를 피해) 크레딧시장으로 눈을 돌린) 투자 의욕에 불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도 기초 체력이 탄탄한 ‘A’등급 회사채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펀더멘털이 좋거나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의 재료를 담고 있는 곳이 많다.

국내 신용평가 3사가 등급을 부여한 A등급 회사채는 114개 사(약 30%)다. ‘AA’(158개)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등급 전망이 ‘긍정적’인 곳은 13개에 달한

다. AA(1개), BBB(3개)보다 월등하다. 그만큼 상환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은 채권 투자 입장에서 가장 큰 약재다”면서 “채권에 대한 투자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그렇다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는 주식이나 불확실성이 큰 대체투자(AI)에 대한 비중을 크게 늘릴 수도 없다. 자산 배분 관점에서 채권 투자가 필요하다면 현재 금리 상승에 가장 방어적하면서 수익을 내는 ‘A’등급 회사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탄탄한 기업으로 HDC현대산업개발과 TSK코퍼레이션(이상 A+), 광동제약과 현대비엔지스틸(A0), KCC건설(A-)을 꼽았다. 기초체력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곳으로는 동원F&B와 세아제강(이상 A+), 크라운제과와 한솔제지(이상 A0), 노루페인트(A-)를 들었다.

SK매직과 TSK코퍼레이션은 IPO 등 이벤트를 통해 펀더멘털을 개선할 곳으로 지목했다.

또 SK증권과 흙플러스, 대우건설에 대해선 M&A 모멘텀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기업은 사모펀드(PEF) 또는 산업은행이 높은 지분을 소유하는 곳에 속한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상장사 배당금 11.6조 ↑… 삼성전자 빼도 8800억 늘어

지난 해 사업연도에 배당을 한 상장기업 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배당금 총액은 삼성전자를 제외해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2020사업연도에 배당을 한 12월 결산 상장기업은 1083개, 배당금 총액은 43조1325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 사업연도와 비교해 배당을 한 상장사는 20곳이 줄었지만, 배당금 총액은 11조

5997억 원(36.7%) 늘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포함해 12월 결산 상장기업 수는 지난해 2187개로 2019년(2126개)보다 61곳이 늘었는데 배당을 한 상장기업 수는 줄었다. 이에 따라 배당 기업 비율도 51.8%에서 50.4%로 1.4%포인트 낮아졌다.

이처럼 배당금 총액이 급증한 것은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삼성전자 배당금(9조6192억 원→20조3381억 원)이 10조 원 이상 늘었다. 배당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5%에서 47.1%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배당금 총액은 21조9136억 원에서 22조7944억 원으로 8808억 원(4%) 증가했다. 2019년보다 배당금을 늘린 곳(547개)이 줄인 곳(430개)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새롭게 배당을 한 곳도 91곳에 달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하이일드펀드 급증 ‘큰손’ 공모주 노리나

10억~50억 소규모 펀드 증가 “IPO 타깃”…형평성 논란 지적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 도입된 균등배정 방식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모주를 더 받으려 가족 명의의 총동원해 상장 주관을 맡은 여러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급증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고액자산가를 의미하는 이른바 ‘큰 손’들이 가족 명의의 모어 증권사를 돌려 공모주를 청약하는 대신 하이일드펀드로 공모주 청약 이점을 누리고 있다.

28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국내혼합형펀드 중 하이일드혼합 부문에 유입된 금액은 45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도가 낮은 대신 수익률이 높은 고수익·고위험의 채권형 펀드를 의미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주식 45% 이상을 보유하는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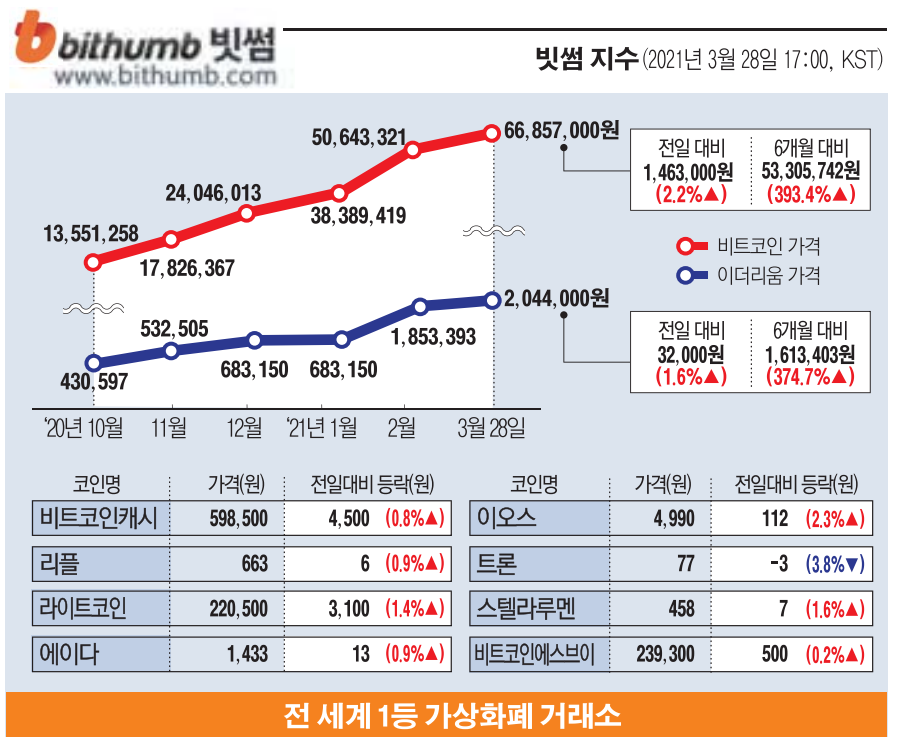
신 공모주 물량의 5% 우선 가져가는 혜택을 부여받는 펀드다.

자산운용업체 관계자는 “자녀끼리자금을 모아 소규모 사모자산운용사에 하이일드펀드 설정을 요구하거나,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설정하고 공모주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는 모든 투자자에게 개방된 공모펀드와 달리 49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하이일드펀드는 코스피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공모주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 청약 광풍이 분 시점부터 10억~50억 원 수준의 소규모 하이일드펀드 설정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추세가 공모주 청약 제도 개편과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PO대어’가 몰리고 공모주 시장이 활황일 때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게 하이일드펀드”라며 “불법은 아니지만, 공모주 청약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아 기자 ljh@



“다주택 팔아라” 불호령에도 처가찬스 쓰거나 버티거나

고위공직자 ‘다주택 피하기’ 품수 백태

재산등록 의무 대상 아닌 처가 식구에 매도 잇따라
고위직 5명 중 1명은 두 채 이상, 안 팔고 버티기도
전문가 “과한 규제될 수도…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를 향해 정부가 쌍심지를 켜면서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가족에게 집을 팔아 다주택자에서 벗어나는 ‘눈 가리고 아웅’ 식 행태도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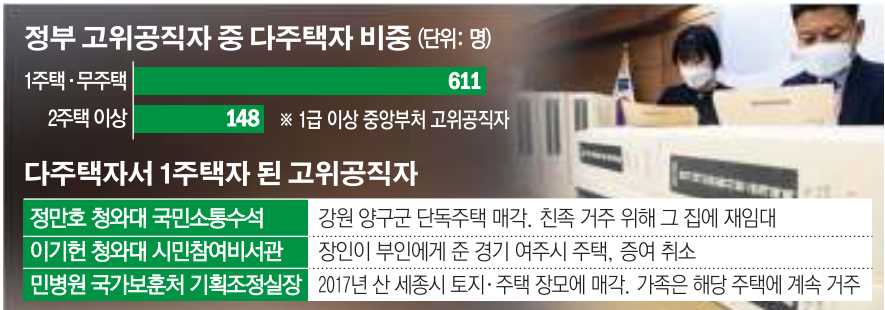
이기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일가는 지난해 7월 장인에게 받았던 경기 여주시 빌라를 다시 처가에 돌려줬다. 이 비서관 부인이 2018년 이 빌라를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지 2년 만이다.

◇신고 의무 없는 ‘처가 찬스’= 이 비서관이 증여를 취소한 건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한 직후다. 고위공직자가 다주

택을 끼고 시세 차익을 누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정부가 곤욕을 치르던 상황이었다. 청와대가 다주택 정리령을 내리자 정세균 국무총리도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정부 방침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주시 빌라를 장인 명의로 돌리면서 이 비서관 내외가 소유한 주택은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 한 채로 줄었다. 다만 이 비서관 주소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장인 소유 빌라로 돼 있어 사실상 2주택자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다주택 정리에 ‘처가 찬스’를 빌린 고위공직자는 이 비서관뿐 아니다. 민병원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 매입한



세종시 연서면 농지와 주택을 지난해 매각했다. 이들 부동산을 산 사람은 민 실장의 장모였다. 민 실장 일가는 전세 형태로 연서면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집을 빨리 팔기 위해 장모에게 매각했다는 게 민 실장의 해명이다. 민 실장 일가가 산 세종시 연서면 일대는 민 실장 매입 후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발표되면서 지가가 급등했다.

이처럼 처가 찬스가 횡행하는 건 현행법상 재산 등록 대상이 고위공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돼서다. 처가와 관련해서는 재산공개는 물론 등록 의무도 없다. 표면상론 1주택자가 때문에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자를 원칙적으로 배

제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재산 등록·공개 대상을 공직자 형제나 처가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고위공직자 다섯 중 하나는 ‘버티기’= 다주택자 배제 원칙에 집주인에서 세입자 신세가 된 공직자도 있다. 정관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해 강원 양구군에 갖고 있던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남겼다. 정 수석은 청와대에 입성하기 직전까지 양구군 집을 20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 1억3000만 원에 집을 판 정 수석은 친족 거주를 위해 6000만 원을 주고 그 집에 부인 이름으로 다시 전세를 얻었다.

정부 엄포에도 다주택 고위공직자 일부는 집을 팔지 않고 버티고 있다. 올해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759명 중 149명은 이번에도 집을 두 채 이상 신고했다. 장상운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파주시, 일산신도시 등 세 곳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산하기관에선 정경득 수협중앙회 이사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과 경기도 등에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건물 6채를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1가구 1주택 원칙을 국민에게 권하기 위해선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공직자 개인에겐 과한 규제가 될 수 있다. 형평성 있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1주택을 강요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유연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공공재개발 2차후보지 발표 임박 “LH 신뢰 바닥인데” 우려의 시선

이번 주 중 20여 곳 선정 전망
땅 투기 사태로 사업 지지부진
1차 주민 설명회도 다 못마쳐

‘공공재개발’ (공공 참여형 재개발) 2차 사업대상지가 곧 베일을 벗는다. 2차 사업 지역은 최종적으로 20곳가량 선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 6월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시장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주관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땅 투기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2차 사업 대상구역을 늦어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흥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음 주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2·4대책 관련 지방자치단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공공재개발 2차 사업 후보지는 20여 곳 안팎이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2차 사업 후보지로 총 28개 구역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주요 후보구역으로는 용산구 한남1구역과 성북구 성북1구역, 영등포구 신길1구역, 송파구 거여새마을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할 LH와 정부가 땅 투기 의혹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발표한 1차 사업대상지 8곳은 애초 지난달 설 연휴 이후 주민 설명회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설명회를 진행한 곳은 봉천 13구역 단 한 곳뿐이다.

아울러 LH와 서울토지주택공사(SH)가 공공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민동의를 받아 낼지도 의문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해당 구역 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LH 사태로 공공의 협상력은 그 어느 때보다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주요 사업구역은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움직일 추가 완화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축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13년 만에 ‘본궤도’ 최고 40층·5개 동… 전시·회의장 갖춘 주거복합단지 조성

13여 년간 표류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2026년 서울역 북부역세권에 최고 40층 높이, 5개 동 규모의 전시·호텔·판매·업무·주거 복합단지가 들어선다고 28일 밝혔다.

도심 및 강북권에 국제회의 수준의 전시장과 회의장을 갖춘 MICE(컨벤션) 시설이 들어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토지소유자인 코레일, 사업자인 한화 컨소시엄과 지난해 4월부터 벌여 온 사전협상을 올해 2월 마무리하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안’을 확정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금주의 분양캘린더

4월 첫 주에는 전국에서 6500가구 가까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분양 시장에 나온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15개 단지 6491가구(일반분양 5200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수원시 정자동 ‘복수원 자이 렉스비아’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e편한세상 주안 에듀서

밋’,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 스위첸’ 등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는 15곳이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씨티오씨엘 3단지’와 충남 아산시 배방읍 ‘더샵 센트럴’, 광주 서구 광천동 ‘힐스테이트 광천’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17개 단지에선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대구 남구 대명동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

럴’과 충북 청주시 용암동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등이 정당계약을 받는다.

11개 단지에선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 ‘용인 드마크 데시앙’과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 송도 아크베이’, 경남 거제시 고현동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등이 견본주택 문을 열고 청약자를 맞는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3/29 (월)	접수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센트레빌라메르 ♣
		발표	울산 동구	전하동	KCC스위첸엘츠타워(2단지) ♣
		경북	김천시	평화동	김천평화(행복주택)
		포항시	동빈2가	포항중앙(행복주택)	
	계약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신도시참이름3단지(국민임대) (~3/31)
		부산	기장군	기장읍	부산기장A3(행복주택) (~4/1)
					부산장안A1(국민임대) (~4/1)
3/30 (화)	접수	대구	남구	대명동	힐스테이트대명센트럴 (~4/2)
					힐스테이트대명센트럴 ♣ (~3/31)
		울산 남구	신정동	울산신정(행복주택) (~3/31)	
	오픈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엘크루에비뉴원
		경기	수원시	정자동	복수원자이렉스비아 1순위 (당해지역)
3/31 (수)	접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e편한세상주안에듀서밋 1순위 (당해지역)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스위첸 1순위 (당해지역)
	발표	울산 울주군	안양읍	e편한세상울산여바스퀘어	
		충남 아산시	배방읍	다샵센트로	
4/1 (목)	접수	경기	수원시	정자동	복수원자이렉스비아 1순위 (당해지역)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e편한세상주안에듀서밋 1순위 (당해지역)
	계약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밸리스 1순위 (당해지역)
		광주	광산구	산정동	광주산정대광로제비앙 1순위 (당해지역)
4/2 (금)	접수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복합타운A1(행복주택) (~4/1)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금호아울림더퍼스트 (~4/1)
	발표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내포신도시2차대방엘리움더센트럴 (~4/1)
		경기도	고성동3가	오페라센텀파크서한아름 1순위 (당해지역)	
4/3 (토)	접수	대구	달서구	송현동	한양수자인더밸리시티
		강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밸리시티
	계약	경기	수원시	정자동	복수원자이렉스비아 1순위 (기타지역)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e편한세상주안에듀서밋 1순위 (기타지역)
4/4 (일)	접수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스위첸 1순위 (기타지역)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이안엑스디움에이팩스 1순위 (기타지역)
	발표	경기	고성동3가	오페라센텀파크서한아름 1순위 (당해지역)	
		광주	광산구	산정동	광주산정대광로제비앙 1순위 (기타지역)
4/5 (월)	접수	경기	고양시	오금동	힐스테이트피아노샵송(1단지) ♠ (~4/5)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센트레빌라메르 ♣ (~4/3)
	계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동의센트럴파크 (~4/5)
		경기	고양시	오금동	힐스테이트피아노샵송(2단지) ♠ (~4/5)
	오픈	경기	고양시	오금동	힐스테이트피아노샵송(3단지) ♠ (~4/5)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REPS

유튜버에 다단계까지... ‘투잡 천국’ LH

겸직 승인자 452명 대부분 대학서 강의·협회 위원직도
‘금지 위반’ 징계 6명... 판매업체 개설, 지인 회사에 재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중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겸직자’가 수백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직원이 토지경매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된 것과 유사하게 영리 활동을 하다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 받은 직원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겸직승인 현황과 겸직금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겸

직 승인을 받은 LH 임직원의 수는 모두 452명이다. 겸직 승인을 받은 임직원 대부분은 대학교 출강과 학회나 협회의 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지난해 3월에 처음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겠다는 직원에 대해 겸직 승인을 했다. 유튜브 활동으로 겸직이 승인된 직원은 모두 3명이다. LH 업무와 연관성이 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겸직한 직원들은 7명에 달한다. 또 다른 임직원 6명은 임대사업자로 겸직 승인을 받았다.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다단계 업체의 생필품과 건강보조식품을 팔아 한 달에 100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겨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영리 목적으로 기술사 강의를 한 B 씨에게는 감봉이, 본인 명의로 판매 업체를 설립한 C 씨와 지인 회사에서 기술이사로 활동한 D 씨는 각각 정직 처분을 받았다.

특히 토지경매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다 파면당한 직원 E 씨는 통계에서 제외됐다. E 씨는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면서 유료 사이트에서 부동산 강의

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강의 내용은 LH 사업과 직결되는 토지 경매·공매였다. E 씨는 한 때 토지보상 업무를 맡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 씨는 강사로 활동하던 당시 사내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까지 LH 사장을 역임하면서 겸직한 직책은 모두 7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정책기획위원회 특별위원 등이다. 박상우 전 사장은 서울대 공대 교수직 등 4개, 이지송 전 사장은 한양대 석좌교수직, 이재영 전 사장은 겸직한 직책이 없었다.

김종용 기자 deep@

“사내정보 무단유출해도
피해 없으면 해고 위법”

직원이 사내 전산시스템 접속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어도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회사에 피해가 없었다면 해고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은 18일 코레일유통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레일유통에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약 2년간 매장 선정 입찰에 참여하려던 B 씨에게 전산정보시스템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B 씨는 A 씨가 알려진 계정으로 전산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각종 정보를 조회 및 열람했고 이를 이용해 4회에 걸쳐 매장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코레일유통은 회사 대외비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9년 10월 A 씨를 해고했다.

코레일유통은 “A 씨가 회사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유출했고 이로 인한 회사의 업무 침해 정도가 크다”며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코레일유통의 해고 결정이 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회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계정을 제공했고 금품 수수 등 사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징계혐의자들에게는 견책 징계가 내려진 점 등을 보면 해고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돌아온 벚꽃의 계절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유종로를 찾은 시민들이 벚꽃이 핀 길을 거닐며 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올해 유종로 벚꽃은 온라인과 인터넷 추천

제를 통해 선정한 제한적인 오프라인 관람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대검, 오늘 ‘합동감찰’ 돌입

‘한명숙 모해위증’ 檢수사 겨냥
정치적 편향성 논란 해소 관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관행을 들여다보는 합동감찰이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관실과 대검 검찰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검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측 허정수 검찰3과장과 임은정 검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검찰 업무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합동감찰을 위한 법무부 검찰관실과 대검 검찰부의 역할 분담, 검찰 진행, 처리방안 등 실무를 조율할 예정이다.

합동감찰 기간도 이날 회의를 통해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합동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중을 낚아치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상당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29일 자로 검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이 검찰에 합류한다.

법무부는 “실·국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검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한 비판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처리 과정 등을 합동감찰 지시 사유로 삼았다.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한다는 명목이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한 전 총리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하는 등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동감찰 당사자인 임 부장검사가 검찰에 참여하는 데 대한 공정성 시비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대검의 임 부장검사 배제 논란도 감찰하도록 했다.

BRAVO My Life

RESUME

재미공감품격

브라보, 함께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 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 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챔잼 TV

시니어만을 위한 소통공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준비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유튜브 채널 브라보 챔잼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유튜브 검색창에 브라보 챔잼 TV)

구독 문의 (02) 799-2680 광고 문의 (02) 799-6727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증권으로 퇴근길에 만나는 실시간 미국주식

해외주식도 KB증권에선 **오후 5시부터!**
한발 빠른 해외투자를 시작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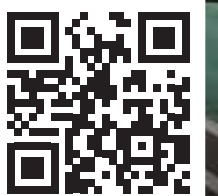
오후 5시부터 만나는 미국주식
거래가능 시간 확대

뉴욕, 나스닥, AMEX 미국 3대 거래소
실시간 시세 무료 지원

매매시 환전 수수료 없이
원화로 거래하는
글로벌원마켓

주문가를 자동으로 결정하고 매매하는
알고리즘 매매 솔루션

✓ 손쉽게
계좌개설하기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1307(2021년 3월 12일)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금손실가능 *투자 전 설명청취
*원금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 *미국 주식수수료 온라인 기준 0.25%(매도시 0.00051% 제비용 별도)이며,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서비스 중도해지 시 환전수수료 발생 가능 *글로벌원마켓 가능국가: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베트남 *알고리즘매매 가능국가: 미국, 중국, 홍콩 *미국
정규거래시간(22시 30분 - 익일 5시, 서머 타임 적용 기준) 외의 시간은 시간외거래시간이며, 시장조성자들의 제한된 참여로 정규장 대비 호가가 비정상적으로 표시될 수 있음

***b KB 증권**

10년간 여성임원 비중 9배 증가 ‘유리천장 깨기’ 앞장



삼성전자는 여성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성 임원과 간부의 수를 늘리고 여성 리더십 교육과 멘토링 등을 실시하면서, 여성 인재들을 차세대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여성 임원 비중은 9배, 여성 간부는 2배 증가했다.

또 다양한 직군에서 여성 인력 채용을 확대해, 개

발직군에서도 여성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중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테크 포럼 등 여성 엔지니어를 육성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출산과 육아 관련 다양한 제도와 시설을 운영하며 임직원이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국내에서 출산휴가, 육아·난임·자녀돌봄 휴직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법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해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모성보호를 위해 모성보호 휴게실, 출퇴근 버스 내 임신부 배려석을 운영하고, 간담회를 통해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해외 생산법인에서도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보호 공간과 유축을 위한 임신부 휴게공간이 설치돼 있다.

2012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기준을 확대했다. 당시는 육아휴직 사용 법적 기준이 자녀 나이 만 6세 이하였으나, 삼성전자는 초등학교 자녀 양육을 원하는 임직원을 위해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로 기준을 확대했다.

남성 임직원의 육아휴직도 2019년 만 12세 이하



2019년 어린이날을 맞아 놀이동산으로 변신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임직원과 자녀들이 함께 놀이 시설을 즐기고 있다.

의 자녀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부여되며, 다태아 출산 시 최대 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여성벤처협회와 ‘지속성장 지원’ MOU



이사회와 다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여성 사외이사를 영입한 현대차그룹은 양성평등과 여성 친화적 경영에 더 속도를 내고 있다. 경영 전반에 걸쳐 여성의 진출이 까다로웠던 자동차와 중공업 분야에서 일찌감치 여성 임원을 발탁하는 한편, 올해부터 우주항공 및 회계, 금융 분야 여성 전문가를 이사회로 이끌었다.

계열사별 기업 시민 활동에서도 젊은 여성 경영인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기아는 지난해 12월 한국여성벤처협회와 비대면 업무협약식을 열고 ‘여성벤처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에 대상으로 기술 혁신을 평가하는 ‘여성 창업 및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의 공식 후원사로 나섰다. 공모전 수상자에게 업무용 차량(레이) 1대를 증정하는 등 여성의 벤처 창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여성벤처협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물류·업무용 차량 관련 요구사항을 점검하고 △모빌리티 서비스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받는 등 B2B 고객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



기아와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지난해 12월 비대면 업무협약식을 열고 ‘여성벤처 기업의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이다.

다양한 시승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국여성벤처협회 소속 회원사 대표가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과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 ‘스팅어’ 등을 직접 시승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했다.

등록 회원사 대표가 본인 또는 사업자가 ‘K9’ 또는 ‘스팅어’를 구입할 경우 별도의 2% 추가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다양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국내 여성 기업인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기인사 女임원 15명 역대 최대



LG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지닌 여성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주요 상장 계열사에 여성 사외이사 선임 확대하고 있다. 올해 ㈜LG, LG하우시스, 지투알, LG전자, LG유플러스 등 5개 상장사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키로 했다.

여성 사외이사 선임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법인의 이사회를 특정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한 자본시장법(내년 8월부터 적용)을 준수하고 이사회 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정거래, 사업별 전문성 등을 갖춘 여성 사외이사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이로써 LG는 올해 ㈜LG, LG전자, LG유플러스, LG하우시스, 지투알 등 5개사가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내년에는 LG화학, LG생활건강,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도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임원인사에서도 여성 발탁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정기 임원인사에서는 전체 승진자 177명 가운데 여성은 1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4명은 전무로 승진했고, 11명은 신규 상무로 선임됐다.



LG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지닌 여성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LG 테크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한 구광모 LG그룹 회장.

LG의 여성 임원들이 주로 진출한 영역은 마케팅, 연구·개발(R&D), 디자인 등의 분야였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섬세함, 배려, 정서적 능력 등 여성 특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가장 많이 늘어난 직무 영역은 경영상 핵심 분야로 손꼽히는 재무와 인사를 비롯해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IT 분야로 실력 있는 여성 인재들이 전진 배치됐다. 또한, 생산, 고객센터 등 그간 여성 임원이 없었다시피 했던 영역에서 새로운 발탁이 이뤄졌다.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 업무 환경 만들기



SK그룹이 여성 사외이사를 앞세워 ‘여성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SK㈜는 2015년 통합 지주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29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김선희 매일유업(주) 대표이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SK㈜는 김 대표가 여성으로서 공감 능력과 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소통 능력을 더 강화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그룹 관계사에도 여성 사외이사들이 활동 중이다. SK텔레콤은 2018년 운영인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하운경 홍익대 공과대학 교수를, SK하이닉스는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영입한 바 있다.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적 업무 환경을 위한 사내 제도도 운용 중이다.

커머스 포털 ‘11번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11번가가 일과 가정, 생활이 조화로운 기업 문화 조성에 노력해 왔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SK스토아는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행복나래’에서 3억 원 상당의 여성 위생용품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11번가는 2주 80시간 탄력근무제, 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 제도 활성화, 가족 의료비 지원 등 가정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도 주목받는다. SK스토아는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행복나래에서 여성 위생용품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 SK스토아에서 판매를 시작한 약 3억 원 상당의 업드림코리아 ‘산들산들’ 생리대를 기부한 것이다.

산들산들 생리대는 1팩이 판매되면 1팩을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착한 생리대’로 불린다.

경력단절 없도록 국내 첫 ‘육아기 재택근무’



포스코는 가족 친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롤모델을 지속해서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작년 7월에는 일하는 부모를 위해 국내 최초로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경력단절을 없애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스코 직원 중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라면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통해 8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별 상황에 맞춰 6시간 또는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 연계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자녀당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은 재택근무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임신기에 있는 직원들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 직원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풀타임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 여성 직원뿐만 아니라 출산이 임박한 배우자를 둔 남성 직원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또 자녀를 출산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5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된다.



포스코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마련된 직장 어린이집.

저출산의 일차적인 걸림돌인 난임 치료를 위해서도 직원에게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난임 휴가를 유급 6일, 무급 4일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난임 치료를 위해 시술을 받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는 치료비를 회당 최대 100만 원(건보료 지원금 외 개인 부담분) 지원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난임 치료를 받는 직원들이 재직 중 최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포항, 광양 등 사업장에 있는 지역에는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2개소는 절반 이상의 원아를 협력사 등 중소기업 자녀로 구성된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다.

‘행복캠프’로 유대감 키워… 가족친화 인증기업 선정



LS일렉트릭, LS니쵸동제련, LS엠트론 등 LS그룹 내 주요 6개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돼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LS그룹은 시대별로 1970~1980년대는 높은 보상과 처우, 1990년대는 기업의 비전, 2000년대에는 직장의 안정성이 직장인들의 주요 동기부여 요소였다면, 2010년 이후부터는 일과 가정의 균형과

정서적 지원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한 것에 착안해 다양한 ‘위라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LS그룹은 가정과 회사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업무 효율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가족 및 동료 간 다양한 활동과 소통을 통해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가족행복캠프 △아빠캠프 △자녀Dream캠프 △청소년바둑캠프 등을 운영해 왔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 중이지만 방역 당국 방침에 따라 향후 재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참여한 임직원 및 가족 수를 모두 합하면 총

1700여 명에 이른다.

또 LS그룹은 정시 출퇴근제와 PC-OFF 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을 시행해 주 40시간 근무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고 야근 없는 직장을 만들고 있다.

이외에도 전사 공통으로 휴웍스(休-Weeks) 등 재충전을 위한 리프레시(Refresh) 휴가를 권장함으로써, 여름 휴가와는 별도로 연간 임직원이 5일 또는 최대 10일간 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해 평소가 기 힘든 장거리 여행을 떠나거나 가족들과 함께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돕고 있다.



LS그룹 임직원과 자녀들이 안성시 LS미래원에서 개최한 가족행복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사내 어린이집 덕에 엄마도 걱정없이 근무



효성이 ‘일하는 엄마’를 지원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직장을 조성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효성어린이집’이다. 효성은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마포 본사를 비롯해 창원공장, 울산공장 등 3곳에 효성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다.

효성어린이집은 전문기관을 통해 환경 유해 요소 검출 검사를 시행했다. 공사 자재에 대한 친환경 인증도 획득해 최적의 보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전문 위탁업체의 우수한 교사들이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해 직원들이 부담을 덜고 회사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효성어린이집은 저녁에도 운영한다. 이 때문에 직원들은 불가피하게 퇴근이 늦어지더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위치가 가까워 아이 상태에 따라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효성ITX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근무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근무 가능 시간과 여건에 따라 3·4·6시간 단위로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와 주중 근무



효성그룹 마포 본사에 위치한 효성어린이집.

요일을 지정하는 선택적 근로제 등을 활용 중이다.

또 ‘워킹맘’의 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산·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다.

실제 매년 500명 이상의 여직원들이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휴가를 마친 후 복직을 보장해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한편, 효성은 ‘직원의 행복이 회사 성과의 밑거름’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부부가 함께 육아해야죠” 아빠휴가 호평



한화그룹은 여성 친화적인 경영 환경 구축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2010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인재 채용설명회에서 여성인재의 육성을 강조했다.

10년이 지난 2020년 9월 말 한화그룹 최초의 여성 대표이사가 탄생했다.

김은희 한화화학 대표이사는 한화갤러리아 변화추진팀, 한화갤러리아 경영기획팀장을 거쳐 그룹 사상 첫 여성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김 대표를 계기로 앞으로도 한화그룹에서는 나이와 연차에 상관없이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한 여성 CEO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그룹은 2019년 아기를 출산한 가정의 아빠를 위해 한 달간의 출산휴가를 시행했다. 이른바 ‘아빠휴가’는 출산 초기 육아의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1개월 휴가 사용을 의무화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채움 휴직’이 43%, ‘아빠휴가’가 27%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아빠휴가’ 1호 사용자인 유홍재 한화건설 차장이 아기를 안고 있다.

‘아빠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은 육아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면서 아내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직원들도 많았다.

장민수 한화건설 차장은 “‘아빠휴가’를 통해 아내의 힘들었던 점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둘만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채용 때 여성인력 할당제·난임 적극 지원



코오롱그룹은 여성 인력 육성·지원에 중점을 둔 인사 정책으로 인사 관리에서 성차별 요소를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기회와 보상을 부여하고 있다.

2012년 말 임원 인사에서 코오롱 그룹 최초 여성 CEO가 임명됐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2명씩의 여성 임원 신규 임용과 승진 인사가 이어져 왔다.

코오롱그룹의 산업군은 제조, 건설 등 남성 선호 업종에 치중돼있지만,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쏟은 결과다.

업계 최초로 여성인력할당제를 도입해 채용 시 30% 이상을 여성으로 선발하는 등 여성인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키워오고 있다.

코오롱그룹은 일·가정 양립,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임신한 여성 직원에게는 임신 축하 선물을 제공하고 핑크색 사원증을 지급해 맨으로 확인할 수 없는 초기 임신부도 주변 동료로부터 배려받고 위험 사업장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천 본사, 마곡 코오롱 원앤원리타워 등에는 임신부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과천 코오롱타워 어린이집.

어려운 임신부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기 단축 근로를 의무화하고 법정으로 정해진 단축 근무 기간보다 4주 더 확대된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태아 정기검진 휴가, 산전 무급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자녀 돌봄 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난임 치료가 필요한 여성 직원에게는 난임 휴직과 난임 시술비가 지원된다.

마곡과 과천 사옥에는 ‘코오롱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차별화된 모성보호 제도를 실행해 우수 여성 인력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임신·출산·육아부담 없도록 근로시간 단축



LG전자는 여성 친화와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지위 향상으로 여성 인력이 대폭 늘어났고, 여성 직원들의 경력개발을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LG전자는 여성 직장인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임신·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임신 기간 무급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이다.

LG전자는 2006년부터 임신으로 인한 여사원의 근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휴가(90일) 이전 임신 기간에 희망 여사원에 한해 최장 6개월간 무급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출산 이후에도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근무는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여직원에게 한해 최대 1년 동안 적용된다. 단축 근무를 신청한 직원은 주 15~30시간까지 근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원들의 돌봄 부담이 증가했을 때도 임신부 직원에게 적



LG트윈타워 내에 위치한 LG 사랑 어린이집.

극적으로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사내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LG전자는 평택사업장, 창원사업장, 서초 R&D 캠퍼스 등에서 사내보육시설을 운영 중이다. 해당 보육시설에선 전문 위탁업체를 통해 아동을 돌보고 있다.

출산한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 모유·착유시설을 갖춘 모성보호실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LG트윈타워에는 2011년 리모델링을 통해 모성보호실(유축실)의 규모를 넓혀 육아 여직원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복직률 '99.3%' ... 블라인드 채용 여성인력 ↑



KT가 지배구조, 인재 채용 등에서 양성평등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3월 이사회에 여성 사외이사로 여은정 이사(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겸 한국금융학회 부회장)를 선임했다. 이사 선임 시 성별을 포함해 연령, 국적, 인종, 문화적 배경 등의 다양성과 직무, 경험, 전문 지식, 교육 배경 등 직무적 상호보

완성을 확보한다는 의지다.

KT는 채용 시에도 성별을 블라인드 처리한다.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 인력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KT는 2019년 대졸 신입 채용에서 38.7%의 여성 직원을 채용했다.

KT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토대로 채용한 인재를 직무별로 배치하고, 면밀히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며 “인재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제공해 직원 스스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기, 출산기, 집중육아기, 양육기 등 여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케어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신기에는 의료비 지원, 태아검진 휴가, 단축 근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출산기에는 산전후 휴가 및 출산 지원금을 제공하는 출산 감성케어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또 집중 육아기에는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양육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직장 보육시설 이용,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5개 사업장에



구현모 KT 대표가 이달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KT 이스트 사옥에서 여성 임직원에게 프리지아 꽃을 나눠주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기준 KT의 육아휴직 후 여성의 복직 비율은 99.3%다. 안정적 일자리 유지를 의미하는 지표인 복직 후 12개월 이상 근무율은 100%였다.

최초 여성 사내이사 선임 ESG 경영 강화



CJ제일제당은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김소영(사진) AN사업본부장(부사장 대우)을 첫 여성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CJ제일제당은 김 사내이사의 선임을 통해 이사회의 다양성 강화와 동시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외부 영입이 아닌 회사에 오래 몸담아온 내부 임원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은 재계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다.

김 이사는 연세대 식품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박사과정과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대학교 박사 후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2004년 CJ제일제당 바이오 연구소에 입사해 연구개발(R&D) 분야에 종사하며 바이오 기술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말 바이오 사업부문 AN(Animal nutrition)사업본부장에 선임됐다.

이번 선임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는데 특히 ‘G(Governance)’ 항목 중 ‘이사회 다양성’ 확대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CJ제일제당센터의 직장 어린이집 'CJ키즈빌'에서 임직원 자녀들이 놀고 있다.

실제로 CJ그룹은 지난해 말 신규 임원 중 밀레니얼 세대인 80년대생 여성 5명을 비롯해 8명의 여성 임원(21%)을 배출했다. 2018년과 2019년 말 승진 당시 신입 임원 중 여성 임원은 4명으로 예년 대비 2배 규모로, 여성친화 기업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보를 보였다.

CJ제일제당은 사내 여성 임직원과 가족을 위한 복리후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임신부 직원에게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주변의 각별한 배려와 몸관리를 돕고 있다.

임신비용 지원증을 발급하고, 임신부 전용 전자파 차단 담요와 영양제 등을 제공하는 ‘맘제일 케어박스’가 대표적이다.

“女사외이사 통해 의사결정 다양성 추구”



임신부 단축근무와난임 휴직제, 사내 어린이집 운영 등으로 유통업계 대표 여성 친화 기업인 이마트가 첫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양성 평등 기업으로 한단계 더 발돋움했다.

이마트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김연미(사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마트의 기업분할 이후 첫 여성 사외이사로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김연미 사외이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듀크대학교 로스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본시장법과 상법에 정통한 전문가다.

김 사외이사는 제36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홍익대학교 법학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마트는 첫 여성 사외이사 선임 배경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춰 다양한 시각을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ESG 경영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마트 본사 내 어린이집.

이 회사는 2017년 4월 업계 최초로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해선 2시간 단축 근무제를 실시했다.

2시간 단축 근무제는 당사자가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바로 적용되고 단축된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도 보장된다.

아울러 이마트는 여성 임직원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기간보다 휴가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 임직원들은 최장 3년 이상의 출산·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90일), 육아휴직(1년) 등과는 별도로, 임직원들은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사용 가능한 출산휴직과 희망육아휴직(1년) 등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여성친화정책 펼쳐



LG디스플레이는 ‘인간존중 경영’의 이념 아래에 ‘조직 활성화’, ‘최적의 건강’, ‘가족 친화’ 3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양성평등 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와 관련한 경영 철학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가화만사상’ 프로그램이다.

생애 주기별로 구성된 하위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과 가족의 삶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을 5단계로 나눠 ‘생애 주기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 임신한 임직원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출산한 임직원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축하 선물을 지급한다.

또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 단계에 맞춘 다양한 모성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직원을 적극적으로 배려·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임신부 등록 시스템, 전용 주차장 지원, 출산 전후 사용 가능한 출산 휴직과 장려금, 육아휴직, 사업장별 보육 시설 위탁 운영 등이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구성원과 가족 케어



LG디스플레이는 가족친화경영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임직원 자녀들에게 학용품들을 담은 입학 축하 세트를 선물하고 있다.

를 위한 자기 위생 키트 및 격리자 가족 키트를 제공했다.

또 사내 상담실을 활용해 비대면 전화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등 구성원과 그 가족의 안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고용·인사 차별금지 제도적 성평등 실현



현대모비스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을 필수적인 철학으로 내세우고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와 성평등 의식 제고 역시 컴플라이언스 경영 체계에 포함된 주요 요소다.

현대모비스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성희롱 예방을 포함한 윤리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조직장과 현장직을 대상으로 진행된 성희롱 예방 교육만 해도 총 2744건에 달한다.

성희롱, 폭언 등과 관련한 문제는 사내 심리상담센터 ‘힐링샘’에서 전문상담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조사·처리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교육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임신부 주차 지원, 육아 및 출산 휴가 제도 장려 등을 통해 우수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업무 만족도와 근무효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가족 친화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육아 및 출산 휴가 사용 후 업무에 복귀한 직원의 비율은 2017년 80%에서 2019년 96%까지 높아졌다.



현대모비스 용인 기술연구소 대강당에서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400여명이 ‘2019 현대모비스 컴플라이언스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있다.

평등한 고용과 인사 제도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평가와 승진 심사 시 성별에 따른 불이익과 차별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매년 책임 승진자 축하행사에 가족을 초청해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도 조성하고 있다.

여성 임직원의 수도 늘고 있다. 지난해 현대모비스의 여성 임직원은 1148명으로 10년 전보다 80% 증가했다.

전체 직원 중 여성 직원의 비율은 10%를 넘어섰고, 여성 하급관리직의 비율도 14%를 웃돌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Green + Digital

뉴딜 투자, 글로벌하게 하나로~ 담자!



K-뉴딜을 넘어 '글로벌 뉴딜' 투자로!

하나뉴딜글로벌테크랩 V4

*주요 투자 테마

그린 뉴딜 + 디지털 전환

(친환경차, 2차전지, 그린에너지 등 + 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 글로벌 투자 트렌드를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테마
투자포인트 「그린 &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해외주식에 집중 투자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랩 수수료 • 선취형: 선취 1.0%, 후취 연1.5% • 성과형: 후취 연1.5%+성과보수(고객과 별도 합의)

[투자자 유의사항] *당사는 본 랩에카운트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랩에카운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랩에카운트는 고객계좌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임대계약으로 계좌별 운용실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거래 중개회사 및 해외 거래소에 지불하는 비용이 고객에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본 비용은 해당 거래소 및 중개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0290호(2021.01.21~2022.01.20), cc브랜드210121-0151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투자

“현재 상태의 국민연금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

1월 취임한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

“어떻게 그렇게 적게 받아서 많이 줄 수 있냐” 모두들 의아
“임기 중 목표는 연금개혁 공론화…낙관론에 경각심 줘야”

윤석명<사진> 한국연금학회 회장의 임기 중 최대 목표는 연금개혁의 공론화다. 올해 1월 연금학회 11대 회장에 취임한 윤 회장은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초고령사회 공·사 연금개혁’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28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침체된 연금개혁 논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며 “다가오는 춘계 학술대회에서 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공적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계 학술대회에서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를 계기로 4개 선택지를 담은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 했다. 국회의원 총선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다른 이슈에 정치가 매몰된 탓이다.

윤 회장은 중국·일본의 사례를 들어 연금개혁을 바라보는 한국 정부·국회의 안일함을 비판했다. 그는 “한·중·일 연금전문가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두 나라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적게 받아서 많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며 “일본은 국민연금 보험료만 우리의 두 배가 넘는데 가



정 내 경제활동인구와 기초연금을 고려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우리의 3분의 2 수준이고, 중국조차 우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까지 갈 필요 없이 동북아 국가들만 비교하더라도 우리

해양환경공단 한기준 이사장

해양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에 26일 한기준 전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취임했다.



한기준 신임 이사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 장훈고, 경희대 법학과, 미국 델라웨어대 대학원 해양정책학(직무훈련) 과정을 수료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해양환경과장, 해양생태과장, 연안계획과장, 국립해양조사원장, 해양산업정책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직에서 쌓은 해양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소통·협업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국제금융센터 황인선 부원장 내정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에 황인선(56) 전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 국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금센터 부원장 자리는 전통적으로 한은 국장 출신 몫이었다.



황 국장은 절차를 밟기 위해 앞서 2일 한은을 퇴직했고, 26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그는 국금센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달 초 취임할 예정이다.

황 국장은 1965년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한은에 입행했다. 한은에서는 2016년 자본시장부장, 2017년 국고증권실장을 역임한 후 2018년 기획재정부와 한은간 국장급 교류에 따라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을 거쳤다. 작년 3월부터는 커뮤니케이션 국장으로 재직해 왔다.

한편, 후임 커뮤니케이션국장에는 김영태 전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이 이달 초 임명됐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김형욱 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취임

김형욱 KT 미래가치 추진실장(부사장)이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KoDHIA)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협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 매리어트호텔에서 제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김형욱 KT 부사장을 2대 협회장으로 선임했다.



KoDHIA는 첨단 융복합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진미 기자 aaaa3469@

‘한화와 함께하는 교향악축제’
내일 성남시향 공연으로 개막



‘한화와 함께하는 2021 교향악축제’가 30일 성남시립교향악단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공연은 다음 달

22일까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21회에 걸쳐 진행된다. 국내외 최정상급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참가할 예정이다. 올해 공연에는 전국 21개의 교향악단이 참여한다.

한화그룹과 예술의전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클래식 공연이 다수 취소되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국민과 문화예술계에 위로를 전하기 위해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신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안방에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도 준비했다.

공연 티켓을 구하지 못했거나 공연장에 오지 못할 경우 비대면 라이브 관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연은 네이버 공연라이브로 생중계되고 KBS 클래식FM에서도 실시간으로도 감상이 가능하다.

한화는 2000년 교향악축제를 후원한 이래 22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351회의 공연을 통해 353개 교향악단과 399명(팀)의 협연자가 무대에 올라 1024곡을 연주했다. 누적 관객은 52만 명이다. 김대영 기자 kdy@

美 연방의원도 피하지 못한 아시안 차별

앤디 김, 코로나19 발생 직후 “기차 옆자리에 앉지 마” 경험

올바른 대처·소수집단 연대 강조

한국계인 앤디 김<왼쪽 사진> 미국 연방하원의원이 직접 겪은 인종차별 경험을 소개하면서 올바른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애크랜다에 기반을 둔 미주동남부한인회연합회가 27일(현지 시간) 개최한 온라인 미팅에 참석한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기차에 탑승했을 때 겪은 일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좌석에 앉자 옆자리의 여성이 자신에게서 떨어지라고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그는 “그 여성은 내가 단지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코로나19를 옮길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상황이었지만, 김 의원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여성의 요구

대로 자리를 옮겼다. 김 의원은 “그 순간에 제대로 대응해 타인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줬어야 했지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후회가 된다”고 털어놨다.

역시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오른쪽> 의원도 지역 정치권에서 겪은 인종차별을 소개했다. 2006년 한인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 조세형평국 위원에 당선된 데 이어 오렌지카운티 2지구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를 연임한 박 의원은 지난해 한 회의를 주재할 때 ‘체어맨 마오’(모택동 의장)라는 소리를 들었다. 아시아계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모택동과 비교당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는 “나는 당신처럼 개를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



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반인이 정치인에게 하는 막말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시아계 시민에 대한 증오범죄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매릴린 스트리클랜드 의원은 소수 인종 간의 연대를 강조했다. 스트리클랜드 의원은 “소수 집단 안에서도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인종 관련 범죄에 대해서 소수집단이 연대하면 더욱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류현진, 3년 연속 개막전 선발
내달 2일 양키스와 방문경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도 로튼도 블루제이스 류현진(34)이 한국 선수 최초로 3년 연속 개막전 선발로 등판한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27일(한국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볼파크에서 MLB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시범 경기를 마친 뒤 화상 인터뷰를 통해 다음



달 2일 미국 뉴욕주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와의 정규시즌 개막전 선발로 류현진을 예고했다.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승진 △전영수 우정사업본부 경북지방우정청장 ◇과장급 전보 △납석 기획재정담당관 △이정순 통신이용제도과장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장수완 ◇국장급 전보 △인사기획관 고기동 △정부혁신기획관 조상명 △디지털정부국장 정선용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통상차관보 나승식 ◇실장급 승진 △무역투자실장 문동민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전운중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최규중 △자원산업정책관 유범민 ◇과장급 전보 △무역위원회 담핑조사과장 이원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부산지방항공청장 이상일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승진 및 국장급 파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방지추진단 박민우

◆조달청 ◇개방형 직위 임용(국장급) △조달품질원장 김지욱

◆농촌진흥청 ◇도원장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본부장 권순진 △자원기반본부장 박명재 △비서실장 김경호 △재무관리처장 안종령 △해외기획처장 서경환 △개발지원처장 김남인 △기술연구원장 최욱진 △자산매각지원실장 류나영 △법무실장 윤상수 △남북자원실장 김문섭 △광산안전사업실장 김영석 △감사팀장 손영보 △전략기획팀장 이제희 △예산파트장 마일환 △자금팀장 박가연 △해외총괄팀장 신병호 △자산매각1분과장 신동호 △안전기획분과장 이준용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실 논설위원(부국장) 박성완 △ 논설위원(부장) 박수진 △광고국 신문광고 부국장 전우형 △편집국 영상정보부 선임기자(부국장대우) 김병연 △ 정책·국제 부문장 겸 경제부장 박준동 △ 산업부문

장 겸 산업부장 이심기 △ 마켓부문장 겸 금융부장 장진모 △ 영상부문장 겸 디지털라이브부장 조성근 △ 건설부동산부장 서욱진 △ 생활경제부장 김형호 △ 마켓인사이드부장 고경봉 △ 중소기업벤처부장 이정선 △ 지식사회부장 송종현 △ 영상정보부장 강은구 △제작국장 정희준 △광고국 신문마케팅1부장 유형노 △ 신문마케팅2부장 김대환 △경영지원실 업무지원국 관제부장 전병국 ◇아그로플러스 △대표이사 유병연 ◇환경닷컴 △상무보 김태완 △뉴스국장 이상열

◆한겨레신문 ◇국실장 △경제사회연구원장 이봉현 △미디어전략실장 류이근 △경영기획실장 강대성 ◇부국실장 △신문총괄 고경태 △콘텐츠총괄 김영희 △에디터 부문장 권태호 △콘텐츠1부문장 이지은 △콘텐츠2부문장 송호진 △경영지원담당부실장 이상준 ◇부장 △경제에디터 김희승 △경제에디터 이재성 △문화기획에디터 김은형 △사회에디터 이본영 △사회에디터

전종휘 △정치에디터 신승근 △정치에디터 최혜정 △종합편집부장 천복귀 (편집국 콘텐츠1부문) △경제산업부장 최우성 △문화부장 박미향 △사회정책부장 정세라 △디지털뉴스부장 김미영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이세영 △논설위원 이종규

부음

▲백장현 씨 별세, 김춘수(췌관화 지원 부문 부회장) 씨 빙부상 = 28일, 대구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302호실, 발인 30일, 053-940-7495

▲이옥희 씨 별세, 홍덕률(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씨 장모상 = 28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30일 오전 5시 30분, 032-460-9408

▲김옥인 씨 별세, 변봉남(서귀포시 새마을회 회장) 수남(부산소방재난본부장) 씨 모친상 = 28일,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2층 제3분향실. 발인 31일 오전 7시, 064

-730-3710

▲김일수(전 동아일보 홍콩특파원·편집부국장) 씨 별세, 정정숙 씨 남편상, 김서영·지영·서정 씨 부친상, 김성신(미국 위스콘신대 교수)·이현상(현대산업개발 차장) 씨 장인상 = 27일,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30분, 02-3410-6915

▲박영선 씨 별세, 김영자 씨 배우자상, 박성규(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상무)·성희·은숙 씨 부친상, 정순옥(호텔롯데 조리과장)·장용준(미국P&G QC 디렉터) 씨 빙부상, 최현숙 씨 시부상 = 26일, 아산 제일장례식장 2호실, 발인 29일 오전 9시, 041-545-4444

▲박형규(10대 국회의원·전 대한민국헌정회 고문) 씨 별세, 김서한 씨 남편상, 박명숙·순옥·혜영·은주·정옥(삼성디스플레이 부장) 씨 부친상 = 2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9일 오전 10시, 02-2258-594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일본 아오야마학원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30년 만기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구입가의 70~80%까지 국가가 보장해 주자. 그리고 향후 다른 주택이나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 잔액 전부를 즉각 상환토록 하자. 1차 목표는 20~30대의 영끌바인을 진정시켜 수요를 조절하고, 흡수저 가구들도 비슷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최근 주택 가격 폭등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개발로 주택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고,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생활동 인구 감소가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폭등한 주택 가격을 신규 공급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다. 아울러 신도시 건설 등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되고 중국에는 빈집과 폐가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보다는 20~30대의 ‘영끌바인’ 등에서 읽히는 수요 폭증 현상에 주목하고, 본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가장의 나이를 기준으로 가구별 연령대를 20~30대 가구, 40~50대 가구, 60대 이후 가구로 나누어 그룹별 거주용 주택 선호를 생각해 보자. 20~30대 가구들은 대부분 1~2명의 성인과 0~2명 정도의 영유아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교외의 넓고 쾌적한 집보다는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위치한 경제적인 집을 선호한다. 그러다가 아이들

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학군이 발달한 곳에 위치한, 그리고 아이들에게 각자 방을 줄 수 있는 정도 크기의 집을 선호하게 된다. 60대 이후 가구들은 자녀가 독립을 하면서 번잡한 도심보다는 교외의 넓고 쾌적한 집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거주용 주택 선호 변화를 반영하여 주택 구매 수요를 살펴보자. 20~30대 가구는 추후 자신들이 선호하는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희망만 있다면 굳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내며 당장 도심의 작은 집을 소유할 절박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이후 3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가 주택 구매 욕구가 가장 강렬한 시기다. 이 시기에 성공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가구들은 60대 이후로는 자식들에게 증여나 상속으로 넘겨줄 방안을 고민한다. 자식들이 스스로 주택을 구매했거나 구매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제서야 비로소 소유 주택에 대한 매도도 생각해 본다. 결국 20~30대 가구의 선취매 절박감을 진정시키고, 60대 이후 가구의 증여나 상속 물량을 매도로 유도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의 열

쇠다. 예를 들어 가구원 누구도 과거 주택이나 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적이 없는 40대 혹은 그 이후 가구들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30년 만기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구입가의 70~80%까지 국가가 보장해 주자. 그리고 해당 주담대를 받은 가구가 향후 다른 주택이나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 잔액 전부를 즉각 상환토록 하자. 1차 목표는 20~30대의 영끌바인을 진정시켜 수요를 조절하고, 흡수저 가구들도 비슷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한편, 주택의 지분 일부라도 증여받았던 사람은 해당 주담대를 평생 받을 수 없다면 증여의 기회비용이 커진다. 더욱이 자신이 증여해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나중에 집을 살 수 있다면, 지금부터 보유세까지 부담지을 필요도 없다. 다주택자들은 증여보다 매도를 모색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년 자식들이 해당 주담대를 받는다면, 다주택 부모들은 보유 주택을 상속하기보다는 사전에 매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

다. 더이상 주택을 재산 증여나 상속의 매개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연스레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만약 양도세나 기타 거래비용 인하가 병행된다면 더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수저와 흙수저 간의 출발선 격차도 좁히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혹자는 현재 유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된 점을 들어 추가적인 대출 확대 방안에 반대할 수도있다. 그러나 이는 신도시 건설로 일시적으로 풀릴 유동성을 감안한다면 훨씬 안정적인 방법이다. 정부가 장기 계획에 따라 해당 주담대 상환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면, 당장 유동성의 폭발적인 증가 없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가령 10년 후부터는 해당 주담대가 주택 구입가의 80%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믿음만 심어 준다면, 현재의 20대는 영끌바인을 하지 않을 것이고, 어린 아이들을 둔 다주택자들은 증여보다는 매도를 택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들 사이에 그러한 믿음이 자리 잡는다면, 정권이 여러 차례 교체되어도 그 믿음을 배신하기란 쉽지 않다.

대방로

이근 행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땅을 사랑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 이야기로 시끄럽다. 공적인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노렸다는 불공정 논란이 공분을 일으키는 듯하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98.6%)이 논, 밭 등 농지로 밝혀지며,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한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는 농(農)의 토대이고, 농지보전과 이용은 사회공동체 지속발전의 근본이자 책무이기에, 농지는 농사를 짓는 이들이 소유·이

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현실과 제도는 비농업인도 사실상 누구나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하며,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다. LH 일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은 사전 개발정보를 얻어 단기의 급등을 노린 것일 뿐, 장기투기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농지의 소유와 용도 전환이 까다롭게 관리되지 않으니 개발이익 기대가 만연하고 농지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로운 농업세대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개발 명목으로 25.8%의 농지가 사라졌다. 그 사이 식량자급률도 절반 넘게 줄어 20%에 머물고 있다. 가까운 10년간도 연 1%씩 농지가 줄고 있다.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경지의 절반 이상이 임차농지이다. 차명소유와 파악하지 않는 임대차 농지를 포함하면, 농지개혁 직전 해방 직후 소작농지 비율이 66%에 이르러 농업생산 기반이 동맥경화에 걸려있던 때와 같은 수준이다. 지금의 농지법은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 예외조항이 계속 덧붙었다. 농촌 고령화로 늘어나는 비농업인의 상속농지는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나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고 행정조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촌을 떠난 이농자의 1만㎡ 소유 허용은 위헌적인 투기 방지이다. 이는 농기계 조달과 영농 ‘계획’만 제출하면 한두 명인 지자체 공무원이 실질적 심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기 때문이다. 거리 규정도 없어져 수도권 거주자가 제주 농지도 쉽게 소유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 임원 비율, 투자금 비율을 높여 자본과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농지법은 경자유전 예외조항들로 ‘아무나 농지 소유법’이라 불리고 있다. 근현대사에서 농지개혁은 대한민국 발전과 성장의 토대로 평가된다. 농지개혁으로 농업생산과 소득분배가 이루어지고 교육 참여로 인적 자본이 형성되었으며, 부패가 줄고 농민 생활수준이 나아졌다. 사회공동체의 근본인 농의 피해를 돌보지

않고 수탈하면 다시금 동맥경화 증상이 나타나고 경색으로 치닫게 된다. 성장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기후위기, 팬데믹 위기, 공적 역할의 위기, 양극화의 위기들은 사회적 전환이 필요함을 일러주는 경고이다. 국가는 공동체의 지속을 위한 이치, 원칙을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농지가 필요한지 계획과 목표가 필요하다. 국토종합계획에도 농지보전과 목표가 없다. 우리와 식량 여건이 엇비슷한 일본은 농용지 면적 목표를 지난해 인구당 100평 수준으로 하고 있다. 중국은 대략 200평 규모이다. 우리는 인구당 농지면적이 5년 전 100평 수준이 무너졌고, 작년은 91평 수준이다. 식량주권과 농지보전은 국가공동체의 핵심 책무이다.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짓는 데 이용한다는 상식적인 원칙과 행동이 바로 서면 토지 투기는 사라진다. 경자유전, 농지농용의 농지개혁이 토지 투기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필립 앤더슨 명언
“우리는 평균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미국 물리학자. 반도체 같은 무질서한 물질 안에서 전자가 국지적으로 치우쳐 분포하는 것을 설명한 ‘앤더슨 편재화’ 이론을 만들었다. 그는 복잡계 물리학을 대변하는 ‘많으면 다르다(More is different)’라는 말도 남겼다. 개발 입자나 단위를 이해한다 해도 그것들이 모인 집합체는 전혀 다른 구조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오늘 그는 생을 마감했다. 1923~2020.

☆ 고사성어 / 수도선부(水到船浮)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뜬다는 뜻. 실력을 쌓아 경지에 다다르면 자연히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 주희(朱熹)가 문인을 훈도할 때 사용한 말이다. 그의 시 ‘관서유감(觀書有感)’ 두 수 중 한 수에 이 의미가 담겨 있다. “어젯밤 강가에 봄비가 내리더니, 강에 물이 차오르자 큰 배도 터럭만큼이나 가볍게 떠올랐네. 접때는 강바닥에서 배를 밀어 옮기느라 헛되이 힘을 소비했는데 오늘은 물 한가운데 자유자재로 떠가는구나 [昨夜江邊春水生 蒙衝巨艦一毛輕 向來枉費推移力 今日中流自在行].” 출전 주자전서(朱子全書) 답장정부(答張敬夫)편.

☆ 시사상식 / 모듈 기업
생산공장이 없거나 최소한의 시설만 보유하고, 부품이나 완제품을 외부에서 조달해 최종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 우리말 유래 / 감옥(監獄)
조선 시대 감영(監營) 안에 죄수를 가두던 옥사(獄舍). 한때 형무소라 부르다가 지금은 ‘교도소(矯導所)’로 고쳤다.

☆ 유머 / 똑똑한 아들
가족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던 날. 스테이크를 시켜 푸짐하게 먹었지만 남은 음식이 아까웠다. 싸가고 싶지만 망해 “남은 음식은 싸주게. 집에 개가 있어서”라고 웨이터에게 돌려댔다. 그때 아들이 물었다. “아빠, 집에 갈 때 개 사 갈 거야?”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을 특히 힘들게 하는 건 악성 민원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관서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온라인 민원창구 등을 건너뛰고 바로 중앙행정기관에 걸려오는 민원전화 중에는 방역조치와 무관하게 개인적 불만과 욕설·폭언, 다투리를 동반한 악성 민원이 많다. ‘요령 없는’ 공무원들은 20~30분씩 전화통을 붙들고 있다. 그동안 고유업무 처리는 중단된다. 중앙행정기관에 민원전화가 쏟아지는 데에는 지자체나 교육기관이 ‘상급기관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긴 이유도 있다. 그나마 민원 떠넘기기로 끝난다면 다행이다. 공무원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일

도 많다. 국민신문고, 유선전화는 물론, 휴일 야간에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도 한다. 협력 대상이란 점에서 응대도 일반 민원보다 까다롭다. 문제는 민원의 내용이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

는 ‘우리는 이 일을 못 하겠다’는 식의 업무 회피형이고, 다른 하나는 ‘방역지침의 세세한 내용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해 달라’는 책임 회피형이다. 더 난감한 건 후자다. 중앙정부는 방역지침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의 재량으로 맡기고 있다. 지역이나 기관마다 방역 위

기자수첩

김 지 영 정치경제부/jye@



공무원의 적(敵)은 공무원

협요소가 다르고, 현장의 상황은 현장에서 가장 잘 알아서다. 그런데 현장에선 재량을 반기지 않는다. 재량으로 결정한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떠안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결정보단 지시에 따른 업무를 선호한다. 업무 회피형은 재정권 등을 활용해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책임 회피형은 대응이 어렵다. 재량을 활용하지 않는 걸 지시 불응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할거주의는 결국 중앙행정기관 방역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책임 가중으로 이어진다. 소속이나 지위, 직렬이 다르다고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달라지길 바란다면, 그에 따른 차등과 차별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미얀마 ‘세 손가락 경례’의 의미

‘세 손가락 경례’가 미얀마 시민 불복종 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세 손가락 경례가 어떻게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유혈진압을 일삼는 군부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미얀마 시민의 상징이 된 것일까.

학창 시절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에서 활동했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세 손가락 경례가 익숙할 것이다. 스카우트는 하나님과 국가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스카우트 규율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세 손가락 경례를 하기 때문.

그러나 지금의 세 손가락 경례는 유명 소설이자 이를 바탕으로 한 할리우드 히트작인 ‘헝거게임’ 시리즈에서 유래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극 중 독재국가 판엠에 맞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의 인사이자 저항의 상징이 바로 세 손가락 경례였다. 원작소설과 영화에서 세 손가락은 감사와 존경, 사랑하는 사람과의 작별 인사를 뜻했다.

소설과 영화라는 허구에서 비롯된 세 손가락 경례가 어느새 미얀마와 태국, 홍콩 등 동남아시아에서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시민의 상징이 되면서 역사의 한 장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 시작은 태국이었다. 2014년 5월 태국 시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며칠 뒤 시위를 벌이던 한 시민운동가가 갑자기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자연스럽게 반(反) 쿠데타 운동의 상징이 됐다.

이 경례를 대중화한 주역들은 “세 손가락이 자유와 평등, 형제애라는 프랑스 혁

데스크칼럼

배 준 호

국제경제부장



명의 가치를 상징한다”며 “당시 시위에 참여한 청년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독재자를 향해 세 손가락을 올리며 저항하는 영화 헝거게임의 장면과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민주주의는 사실 ‘3’이라는 숫자와 인연이 깊다. 삼권분립도 있고 중국의 국부인 쑨원이 제시한 민족주의와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도 있다. 세 손가락 경례가 시민의 호응을 얻은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세 손가락 경례는 태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홍콩에서도 2014년 보편적 참정권과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혁명이 일어났을 때 세 손가락 경례를 했고 이제 그 물결은 미얀마로도 넘어왔다. 즉 세 손가락 경례는 대만에서 홍콩, 태국,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권위주의에 맞선 젊은이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안아주며 함께 저항하는 연대의 제스처가 됐다. 이들 국가에서 밀크티가 인기 있는 음료라는 점에 착안해 젊은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연대하는 밀크티 동맹도 탄생했다.

중요한 것은 세 손가락 경례와 밀크티 동맹처럼 ‘문화의 힘’이 총칼에 굴하지 않는 뜨거운 저항정신을 끌어냈다는 점이

다.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인터넷을 차단하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끊었다는 점은 독재자들이 이런 문화의 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준다.

한국도 동남아시아 시민의 항쟁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많은 현지 시민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으로 마친내 독재정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한국에 동질감을 느끼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은 태국과 미얀마, 홍콩의 시위 현장에서 울려 퍼졌다.

이런 것을 단순히 뿌듯해하면서 바라만 보서는 안 된다. 한국도 동남아 시민의 숭고한 저항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들의 투쟁이 잊히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연대해야 한다. 미얀마 등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도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까지 수십 년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민주화가 성공하기까지에는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큰 힘이 됐다.

동남아에서 거리로 나선 젊은이들은 민주화를 이룩하면서도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으로 우뚝 서고 한류로 전 세계 문화에도 새 물결을 일으킨 한국에 깊은 호감을 느끼고 있다. 또 자신들의 나라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이들을 위해 우리도 다 함께 ‘세 손가락 경례’에 나서는 것은 어떨까.

baejh94@

노트북을 열며

조 남 호

IT중소기업부 차장



“박지성은 멀티플레이어(multiplayer)다.” 2012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QPR(퀸즈파크레인저스)로 이적한 박지성에 대한 QPR 마크 휴즈 감독의 찬사다. 휴즈 감독은 “(박지성이) 어떠한 포지션도 소화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다. 지금 당장 어떤 자리에 넣겠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남은 기간 훈련과 경기를 통해 팀 전력 강화에 필요한 자리를 박지성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현역시절 박지성은 원어로 출전을 많이 했고 때로는 원 포워드, 중앙 미드필더를 비롯해 풀백까지 소화했다. 박지성은 ‘두 개의 심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많은 활동량과 넓은 활동 범위를 갖췄다. 다른 원어보다 수비 부담을 많이 하다 보니 수비형 원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영국의 더 가디언은 “박지성이 새로운 유형의 원어인 수비형 원어의 창시자”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박지성이 쌓은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명성은 손흥민이 이어받아 더욱 빛을 발하

한 우물과 멀티 플레이어

고 있다. 손흥민은 유럽 톱클래스 수준의 전력 질주를 활용한 돌파와 후방 침투,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골 결정력을 갖추고 있다. 또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해 슈팅 기회를 만들고 성공시킨다. 아울러 본인의 특기인 압도적 스프린트를 이용해 어느 순간 후방 수비를 돕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즉 멀티플레이어에 대한 각광이 비단 스포츠에만 국한될까. 기자가 출입하는 교육업계 역시도 본업인 교육 외의 분야로 발을 넓히는 일이 빈번하다.

지난주 주총 집중 시기 상장 교육업체의 사업 다각화 면면을 보면 본업에서의 외연 확장 외에 그와 무관한 신사업 의지가 읽힌다. 일례로 메가스터디교육은 △경영컨설팅업 △해외이주알선업 △유학상담 및 알선업 △인공지능 교육콘텐츠 서비스, 상품의 개발, 판매 및 운영사업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인공지능 기반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업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 처리 및 정보통신 서비스 업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 △단체급식운영업 △외식사업 △음식점업 등을 정관에 추가했다.

교육업계의 이러한 선택은 기업의 생존과 연계된 불가피한 선택으로도 보인다. 저출산 장기화로 교육 사업의 기본 전제라 할 수 있는 학령인구(學齡人口)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 5003명으로 작년보다 6.3%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는 2015년 12월 이후 62개월째 지속 중이다. 또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분은 -2177명으로 2019년 11월부터 15개월 연속 자연감소가 지속 중이다. 인구 절벽이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6세에서 21세 사이의 학령인구는 2012년 959만 명에서 갈수록 줄어 2015년 900만 명 선 아래로 내려갔고, 올해는 764만 명까지 줄어 10년이 채 지나지 않는 동안 200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다만 본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소홀히 하고 사업 다각화에만 열을 올린다면 교육업계의 선택은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 문어발 확장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더 신중히 판단해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spdran@

사설

코로나19 계속 확산, 백신은 공급차질 우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져 신규 확진자가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계획한 백신물량 확보 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집단면역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82명 늘어 누적 10만 175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05명)보다는 줄었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아래로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주일 동안 하루 신규 확진자는 계속 400명 전후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발생이 70% 이상으로 많고, 가족·지인 모임·다중이용시설·직장·사업장·교회 등 일상 공간을 통해 확산하는 집단감염이 대다수다. 비수도권 확산세도 심각해지고, 감염경로마저 불확실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 더욱 우려스럽다.

정부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현행 유지하고,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조정의 기준이자, 지역사회 유행을 가능할 확신자 지표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방역조치이긴 하지만, 정말 효과적인 대책인지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는다.

백신 공급일정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예정됐던 백신 확보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말고, 4월부터 75세 이상에 대해 화이자 백신이 접종된다. 그러나 계약된 1300만 명분 가운데 1차와 2차 350만 명분 외에, 나머지의 도입 시점이 분명치 않다. 세계 각국의 백신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생산 국가들이 수출 제한에 나서는 상황이다. 다른 백신의 사정도 불안하다. 안센, 모더나, 노바백스 백신의 계약 물량이 4600만 명 분으로 전체적으로 확보된 백신의 60%에 가깝지만, 언제 본격 공급이 가능할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이미 많이 늦었다. 전국민 5000여만 명 가운데 80만 명에도 못 미쳐,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 접종률이 크게 뒤떨어진다. 예정된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정부가 목표한 연내 집단면역 달성에 늦어지고 경제활동의 정상화 시점도 당연히 지연된다.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와 함께 조기접종 말고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 선진국들보다 크게 뒤처진 상황이 최대 걸림돌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신 접종이 늦은 국가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할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백신 확보는 이미 세계 각국의 국력과 자국 중심주의에 의해 우열이 가려지고 있다. 정부의 보다비상한 상황인식과 대응이 요구된다.

미리 보는 한 주 경기·고용·물가·수출, 경제지표 잇따라

이번 주에는 2~3월의 경기, 고용, 물가 지표 및 수출입 실적이 잇따라 발표된다. 또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화)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내놓는다. 앞서 1월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 종사자가 18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만 1000명(1.9%) 감소했다. 코로나19 1차 확산의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4월(-36만 5000명)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17일 발표된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은 15세 이상 취업자 수가 2636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 3000명 감소했다. 98만 2000명이 감소한 1월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절반으로 축소됐지만,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역시 크게 개선된 수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31일(수)엔 한국은행의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와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이 공개된다. 한은의 BSI는 2월의 경우 76으로 전 달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4월 51로 저점을 찍은 이후 10월부터 5개월 동

안 74~78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실물경제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종합적인 동행지표인 산업활동동향은 1월 전산업생산이 전달보다 0.6% 줄어 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목) 3월 수출입 실적을 발표한다. 2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한 448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달도 10월 기준 163억 달러로 25.2%, 20일 기준 338억 7000만 달러로 12.5%의 상승세를 지속해, 3월 전체적으로도 10%대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2일(금)엔 통계청이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2월 소비자물가는 1.1% 오르며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한다. 두 지침은 내년 국가재정 방향의 큰 틀을 정하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어느 정도 설정할지가 관심사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미래를 위한 쌍용양회의
새로운 도전



쌍용C&E
양용양회



지난 반세기, 시멘트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온 쌍용양회.
이제, 환경사업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쌍용C&E(Cement & Environment)로 새롭게 시작합니다.